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한국서 창업 성공한 보스톤대 여학생

“유행 쫓지 않고 좋아하는 일 하면 성공 따라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요즘 창업이 유행처럼 많이 퍼졌는데 창업해서 사장되는 것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힘들어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벗어나 창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몇몇의 성공 사례만을 의지해 일시적인 성과를 꿈꾸며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장애물을 뚫고 부딪히며 열매를 맺는 창업인들도 있다.

(주)아모리스트 서신비(24), 장혜진(24) 공동대표는 2012년에 한국에서 아모리스트를 설립해 고군분투하다가 3년만에 '레이라니' 라는 바디케어 브랜드를 론칭한 후 한창 인기몰이 중이다. 어떤 이는 '두 여학생이 창업에 성공했다. 또 다른 창업성공사례다.' 정도로 설명하겠지만 이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과 없이도 포기하지



보스톤대 휴학 중 한국에서 창업을 성공한 (주)아모리스트 장혜진(왼쪽), 서신비(오른쪽) 대표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일하며 어두운 터널을 거쳐왔다.

보스톤대학교(Boston University) 기숙사에서 만나 단짝 친구가 된 두 대표는 함께 경영학을 공부하며 평소 사업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비슷한 취향, 성격 등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관심사나 원하는 사업방향

이 흡사했기 때문이다. 겨울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나갔다가 '청년창업사관학교' 라는 곳을 알게 돼 큰 마음 먹고 휴학을 결정했다. 한국에서는 휴학이 다반사지만, 유학 생활을 도중에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막상 휴학계를 내고 기숙사에서 짐을 싸려니 털썩 겁이 났다는 두 대표는

한국 흥행돌풍 '명량' 보스톤에서도 상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명량 (The Admiral)' 이 한국의 흥행여세를 몰아 8월 15일부터 보스톤 Showcase Revere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명량' 은 한국 영화로서는 최대 규모로 북미 30개 지역에서 동시 개봉한다. 북미 배급을 담당 한 CJ 엔터테인먼트는 "벌써부터 한인 단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급 관계자는 "영화가 북미 전역에서 개봉함으로써 광복절을 맞아 미국내 모든 한국인이 관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자녀들에게, 외국인 친구들에게, 또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잊고 사는 우리 스스로에게 꼭 보여줘야 할 영화"라고 강조했다.

영화는 1597년 임진왜란 6년, 이순신 장군의 지휘하에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조선 역사상 위대한 전쟁인 '명량대첩' 을 그린 전쟁액션대작으로, 한국에서 개봉이틀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인이려면 꼭 봐야 할 영화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65.47~**

9월 비수기 보스톤출발 왕복 항공권

8월 1일부터! IACE가 보스톤 손님들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합니다!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 뉴튼 현달

- \$2,650/ 3 beds / 2 baths
- 그라지 파킹 포함
- 뉴튼 초, 고등학교와 인접한 거리에 있음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여대생의 선택, 학위보다 창업 그 결과는..

▶▶1면에 이어서

을 쓰러니 덜컥 겁이 났다는 두 대표는 “혼자였으면 결심도 못하고 나중에 미뤘을 텐데, 돌이기에 서로를 다독이며 용기를 줬던 것 같다”며 대학 생활 중 마음 맞는 사업 파트너를 찾은

디케어 제품들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활용품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어 ‘바디케어’라는 개념이 유럽과 미국 시장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어있지 않다. 두 대표는 이 점을 파고들어 한국의

부족한 채로 시작해 회사의 사무적인 업무부터 개발까지 배우는 과정은 두 대표에게 기나긴 여정이었다.

“바다에 돌 던지듯 쌓아 올린 돌들이 3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와 눈에 보이는 듯 하네요. 만약 기다리기 힘들고 지친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 도착점에 오지 못했겠지요?”

경험없는 어린 두 여학생이 ‘동업’을 한다 하니 주위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동업’이라 여기지 않고 ‘같이 재미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 사적으로는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사업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뉠 때가 많았다. 사업 초반에는 티격태격하며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두 대표의 갈등은 오히려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데에 플러스가 됐다.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해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면서 회사를 위한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사업 외에 서신비, 장혜진 대표는 강의 다니며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창업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 일을 시작하고 3년동안 아무런 열매없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와중에도 재미있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학교 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그일이 힘들어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좋은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보라”고 그들은 조언한다.

보스턴 대학 휴학이 길어지고 있지만 꼭 졸업을 하고 싶다는 두 대표는 회사 직원을 하나 둘 늘리면서 그들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던 업무를 직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두 대표가 번갈아 가며 보스턴에 돌아와 학업을 마칠 계획이다.

서신비, 장혜진 대표는 2015년에 ‘레이라니’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이도록 계획 중이고, 현재 또다른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epark@bostonkorea.com



장혜진(가운데), 서신비(오른쪽) 대표가 사무실 가득 쌓인 ‘레이라니’ 배송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것이 큰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아모리 스트가 지향하는 세 가지 사업분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디케어 전문 브랜드 ‘레이라니’다. 한국에서는 바

대표 기능성 바디케어 브랜드로 ‘레이라니’를 자리매김할 목표를 두고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대학도 마치지 못하고 사회경험도

‘명량’ 8월15일부터 보스턴 상영

▶▶1면에 이어서

” 라는 호평이 쏟아지는 중이다. 150여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한 ‘명량’은, 500만 관객을 동원해 흥행한 ‘최종병기 활’의 김한민 감독이 스피커 폰을 잡았고, 이순신 역의 최민식, 일본의 수장 구루지마 역으로 류승룡이 열연했다. 128분의 상영시간 중 61분간 펼쳐지는 장엄한 스케일의 해상 전투

장면은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전쟁액션을 선사한다.

자세한 극장 정보는 www.CJ-Entertainment.com 또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AsianMovies-NMo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ark@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틴맘(teen mom) 돕기 위해 매거진 펴낸 한인 고등학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사회가 등돌리는 십대 미혼모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어린 학생이 있다. 앤도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니 정(17) 학생은 수익금으로 십대 미혼모를 후원하기 위해 지난 25일 매거진을 발간했다. 친구들과 전문 작가들로부터 재능기부 받은 시, 에세이, 소설, 연

를 차고 하루종일 다녀야했다. 처음에는 볼록 나온 배가 재미있고 웃겼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 자신이 임신한 것이 아닌데도 부끄러워졌다. 이 경험은 자기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해 부모님께 의지하는 나이에 이야기까지 돌봐야 하는 십대 미혼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정 학생은 매사추세츠 십대 미혼모들을 위한 작은 자선단체인 Massachusetts Alliance on Teen Pregnancy가 3~4명의 직원과 작은 방 하나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곳에 우선적으로 기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노숙자나 동물은 많이 도우면서 십대 엄마들은 돕지 않는다”고 지적한 정 학생은 십대 엄마들을 돕는 다른 자선단체들도 찾아서 기부할 뜻을 밝혔다.

‘십대 미혼모를 돕기 위한 매거진 발간’이라는 멋진 포부는 내세웠지만, 어린 학생이 재능기부 받기 위해 혼자서 홍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달 동안 매일 교실마다 다니며 도움을 청하고 수시로 이메일, 페이스북, 텀블러에 글을 올렸다. 어떤 아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놀렸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 사이 세월호 모금 운동도 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마침내 53개의 작품을 기증받았으나 많은 작품을 고등학생 혼자서 26개로 추려내고, 편집하고, 교정하는 것 또한 큰 도전이었다.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어

야 했기에 줄어드는 건 잠뿐이었다.

수개월의 수고 끝에 출판된 매거진을 보고 “간장이 풀리면서도 매우 흥분됐다”는 정 학생은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기에 내 이름으로 뭔가를 출판하는 것이 항상 꿈이었는데, 편집자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이 눈 앞에 있으니 신기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니 정 학생은 일반 학생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들의 글도 기증받았다. 매거진에는 정 학생이 1등을 차지한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록세인 게이(Roxane Gay)의 작품도 실려있다.

현재 매거진을 판매하며 십대 엄마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 학생은 H마트 주차장에서 토, 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주정도 매거진을 판매한다. 앤도버 다운타운과 스타 마켓에서도 시간나는대로 매거진 홍보와 판매, 모금 운동을 진행하는 중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LA나 텍사스에서도 매거진을 구입 문의가 들어와 곧 etsy.com 사이트를 통한 판매도 시작할 예정이다.

제니 정 학생은 벌써부터 매거진 2호를 기획하며 8월 1일부터 작품 기증을 받기 시작한다. 2호에서는 글뿐 아니라 미술 작품도 실는다. 1호 겉표지도 미술하는 친구들의 재능기부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정 학생은 작가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들은 여기저기 러브콜을 받지만, 아마추어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실을 데가 없다”며 이 매거진이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한 장도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면 8월 1일부터 empathquarterly@gmail.com 로 보내면 된다.

epark@bostonkorea.com



수익금으로 십대 미혼모를 돕기 위해 재능기부 작품들을 모아 매거진 발간한 제니 정 학생

극 극본, 영화 시나리오 일부 등을 엮은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던 정 학생은 시에라 네바다 컬리지(Sierra Nevada College)가 주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500 상금을 수여받았다. “예쁜 옷을 사려다가 이 상금을 좀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정 학생은 십대 미혼모들을 떠올렸다.

정 학생은 십대들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 수업의 한 프로젝트를 통해 마치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래밍 베스트(Pregnancy Vest)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박에바다 Ephatha Par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언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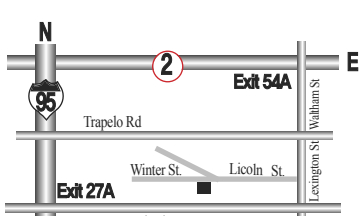
SAT Plus Summer Schedule 2014

June 7/7 - 7/25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August 8/4 - 8/22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책 빌려 주는 시인”

한인도서관 한인단체와 연계 도서대출 본격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지난해 오렌지 시에 ‘매사추세츠 한인도서관(이하 한인 도서관)’을 개관한 유희주 시인이 “책 빌려 주는 시인”으로 나섰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00여권의 한국 도서를 지역 한인

계 도서를 대여해 주고, 이들이 다시 가까운 한인들에게 도서를 대여하는 방식이다. 도서관장이자 시인인 유희주 씨는 “각 단체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며 “유매스 대학 한국어 클래스에 도 책을 대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한인도서관은 유 시인이 2011년부터 추진해 2년만인 지난해 설립된 것으로, 한국의 지인들이 도서를 선정하고 수집한 데 이어 현대해운에서 무료로 배송을 해 줌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한인 도서관을 기점으로 민간 한국 문화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유 시인은 이번 출간한 시집<엄마의 연애> 인세 수입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쓸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한인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받고자 하는 한인 단체는 유희주 시인의 연락처 heeju10@hotmail.co.kr, 블로그는 <http://qhtmxhs05.blog.me/>으로 연락하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한인단체들과 협력하여 6천여권의 한국 도서 대출을 시작한 유희주 시인

들에게 본격적으로 대출하고자 지역 한인 단체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

한인도서관은 보스톤에서 남서쪽으로 한시간 반 가량 떨어져 있는 이유로 한인들이 도서 대출을 위해 찾아가는 것이 어려울만큼, 한인 단체 등을 통해 한인들의 발품을 덜어주기 위해 각 한인회 등 단체와 한글학교, 교회, 대학 한국학 연구소 등과 연계해 이들에

유희주 시인 시집 <엄마의 연애> 출간

이민자 한인들의 정서 어루만져 주는 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유희주 시인이 시집 <엄마의 연애(푸른사상)>를 출간해 주변의 호평을 받고 있다. 총 4부 60여편의 시가 모아져 있는 이번 시집은 시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과 이민자로서 느끼는 삶의 감각들’이 주를 이뤄 이민 1세대 한인들의 정서를 어루만져 줄 것으로 보인다. “체면을 통해 터득한 관용의 정신으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섬세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 시집이다.

“첫번째 시집은 아직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는 딸 시집 보낸 기분이어서 우울했다.”는 유 시인은 “그에 반해 이번 시집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작은 딸을 시집 보낸 기분”이라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즉 “슬픔의 모든 이유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끝까지 갖고 가야 할 근원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쓴 것들”이라고

사십에 과부된 엄마는 / 정말 단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아버지 이후로 정말 한번도 남자에게 마음을 내어 주지 않았을까/ 엄마에게

는 애인이 없어야 당연한 것/그런 잔인한 도덕 누가 만들어 냈을까/ 슬픈 멜로 드라마를 보다/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늦은 겨울 밤/코골며 자던 고단한 엄마의 젊은 몸/엄마의 캄캄한 몸짓을 사춘기의 나는 불안하게 바라봤다/항아리 속의 고인 물도 문 여는 기척에 출렁이는데/엄마는 내일 아침 나가야 하는 행상에/모르는 척 뒤척이고/종일 차가운 바람 몸 안에 가득 채우며/모르는 척 뒤척이고/

밤새 눈이 온 날/구명난 털신을 신고 방학동으로 화장품 행상 나가 시던 엄마/여섯 자식 다 키우시며 삼양동에 집 장만하셨다/엄마 뚝까 지 연애질만 해대는 딸년들을 향해/엄마의 모든 것, 생활력 하나만은/뚝 부러지게 가르치셨다/살아 있어야 연애도 하지 (‘엄마의 연애’ 전문)

진솔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유 시인을 두고 이재무 시인은 “그녀는 화석이 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모국어에 매달려 시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의 시편들은 맑은 날의 바다처럼 잔잔하면서도 차분한 언어의 수평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는, 그 속에 언제나 수평을 찢고 분출할 수도 있는 뜨거운 수직의 감정이 들어 있음을 본다”고 시인의 잠재력

과 열정을 언급했다. 유 시인은 1963년에 태어나 2002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가 있다.



hckim@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한 여름밤, 우릴 기다리는 야외 음악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보스톤의 여름, 서늘한 저녁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름 내내 보스톤 곳곳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들은 이미 친숙한 장르부터 익숙치 않은 장르까지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여 우리들의 귀와 감성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Boston Landmarks Orchestra**

크리스토퍼 윌킨스(Christopher Wilkins)의 지휘 아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거의 매년 이맘때쯤 찰스 강과 음악을 즐기러 오는 관객들로 붐빈다. 이번 해 콘서트에는 라틴 음악과 함께하는 댄스 타임(7월 23일), 뉴잉글랜드 스피릿추얼 앙상블과 소년소녀 합창단의 스피릿추얼 음악 공연(8월 13일), 롱우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콜라보레이션 공연(7월 30일) 그리고 보스톤 리릭스 오페라(8월 6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공연은 무료다.

일시: 8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DCR Hatch Shell on the Esplanade

문의: 617-987-2000,
www.landmarksorchestra.org

***Boston Public Library's Concerts in the Courtyard**

재즈, 포크뮤직, 클래식,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선율이 여름 내내 울려 퍼지는 보스톤 퍼블릭 라이브러리. 수요일에는 퇴근 길에 들르고, 금요일엔 점심을 싸들고 가는 것도 좋다. 카다몬 4중주 실내악단, (7월 25일) local roots-rocker Patrick Coman (7월 23일), 버클리 음대 교수와 컨추리 싱어송라이터 수잔 카타니오의 공연(7월 30일), 컨템포러리 재즈 공연(8월 1일), 인디 포크 밴드인 '달링사이드' (8월 6일),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페르난도 홀즈(8월 20일). 기상이 악화될 경우 커먼웰스 살롱으로 장소를 옮기며 모든 공연은 무료다.

일시: 8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12:30분,
장소: 보스톤 퍼블릭 라이브러리 코트야드
문의: 617-536-5400,
www.bpl.org/news/concerts.htm

***Elaine and Jerome Rosenfeld Concerts in the Courtyard**

매년 여름마다 로컬 뮤지션들을 초대해 음악의 장을 선보이는 보스톤 미술 박물관. 이번 해 라인업은 길거리 민속음악단(7월 23일), 노스 아프리카 핑키 시스터즈(7월 30일), 웨스턴 스윙 밴드(8월 13일), 만돌린(현악기 일종) 연주(8월 14일), 싱어송라이터(8월 6일), 에티오피아 팝 밴드(8월 20일).

일시: 8월 27일까지, 주로 수요일 오후 7:30분.
장소: Museum of Fine Arts
티켓: 성인 \$30, 청소년, 시니어, MFA 멤버 \$24
문의: 800-440-6975,
www.mfa.org/programs/music

***Wavelengths: music series of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CA의 금요일 뮤직 콘서트는 보스톤 하버의 경치와 함께 DJ들과 인디밴드의 공연이 어우러진다. ICA의 'Harborwalk Sound' 시리즈는 매주 목요일 저녁 버클리 음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일시: 금요일 공연: 8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Harborwalk Sound' 시리즈: 8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30분,

장소: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티켓: 금요일: 공연에 따라 \$15-\$25
목요일: 박물관 입장과 공연 무료
문의: 617-478-3103,
www.icaboston.org/summer

***Regattabar Courtyard Series**

찰스 호텔에 위치한 리저타 바에서는 버클리 음대 연합해 매주 월요일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분위기 있는 바에서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재즈 앙상블(7월 21일), 호주 재즈 보컬리스트(8월 11일), 한국인 재즈보컬 전송이 씨(8월 4일) 등이 선보이는 풍성한 재즈 선율을 감상해보자.

일시: 8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Regattabar, Cambridge
문의: 617-661-5000,

www.regattabarjazz.com/events/courtyard-series

***Lowell Summer Music Series**

루씬다 윌리엄스(Lucinda Williams), 네코 케이스(Neko Case), 베일 네크드 레이디스(Barenaked Ladies), 앤드류 버드(Andrew Bird) 등 유명 뮤지션들이 이미 여러번 보딩 하우스 파크의 무대를 장식했다. 앞에는 바다를 끼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소박하고 느긋한 분위기에서 말씨아 볼(Marcia Ball, 8월 8일), 그레그 올먼(Gregg Allman, 8월 9일), 라이얼 러벳(Lyle Lovett, 8월 16일), 미드나잇 트레블러스(8월 22일) 등 고명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일시: 9월 6일까지 매주 다른 요일, 오후 7:30분.
장소: Boarding House Park, Lowell
티켓: 공연에 따라 다름
문의: 978-275-1829,
www.lowellsummermusic.org
epark@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보스톤 느헤미야 신학원 개설 후원 모금 만찬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9월에 개설하는 보스톤 느헤미야 신학원(Boston Nehemiah Institute: BNI)의 평신도신학원을 위한 후원 모금 만찬회가 8월 9일 보스톤

로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BNI에는 신학원과 선교원이 있는데, 9월 신학원을 우선적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곧 선교원을 통해 신학원 교

한 평신도 신앙지도자의 육성, 선교지에서 신학교육을 담당할 보스톤 지역의 목회자 교수진 육성, 한인 이민교회와 이민사회에 균형잡힌 미래세대 지도자 배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부 만찬회, 2부 음악회로 진행되는 만찬회는 참가자 1인당 \$100의 후원금을 받는다. 후원금은 BNI 앞으로 체크를 만들어 'BNI,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로 보내면 된다.

만찬회에 대한 문의는 권복태 장로 (781-408-9430, boktaekwan@gmail.com), 방경남 집사 (917-922-2230, bangkim60@gmail.com)에게 하면 된다.

만찬회 일시: 8월 9일 토요일 오후 6:30분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epark@bostonkorea.com



느헤미야 신학원 브로셔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BNI 이사장을 맡은 보스톤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도 바울 등이 대부분 이민자였다"며 "많은 평신도들이 학생으로서 후원자

수들을 선교지에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목회자들을 포함한 신학 전문 강사진들이 한인 평신도들에게 체계적인 기본 신학 수업을 제공한다. 신학훈련을 통한 건강



육십 세 살 (X) -> 예순 세 살 (O), 육십삼 세 (O)

시간을 말할 때 6:30을 "여섯 시 삼십 분"이라고 하지 "육 시 서른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말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숫자를 쓰는지 알고 적절히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말할 때에는 "예순 세 살", "선 여덟 살" 또는 "육십삼 세", "오십팔 세"라고 하지, 이것을 섞어서 "육십 세 살", "오십 여덟

살" 등으로 쓰지 않습니다.

숫자를 쓰는 방법에 관한 우리 말의 구조를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날 수를 세는 것도 삼일, 사일, 십일, ...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한 우리말로 사흘, 나흘, 열흘, ...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보스톤 새생활센터 무료진료 및 약식 동원 건강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는 8월 9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진료는 건강상담과 함께 약식동원 건강 세미나도 진행한다. 진료분야는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상담이다.

건강 세미나 시간:
8월 8일 7:30PM
8월 9일 10:30 AM
건강 세미나 장소: 4 Spring st. Stoneham, MA ; Boston Korean SDA Church)

무료 진료 시간:
8월 9일 오후 2시 ~ 4시
장소 및 문의: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전화: 781-365-1867
주최 및 무료 진료 안내: 보스톤 새생활 센터 대표 송연호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공지: 마운틴 워싱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에서는 8월 2일 마운틴 워싱턴으로 제13차 정기산행을 간다. A, B, C 세 개 조의 코스, 높이, 산행시간, 난이도 등이 각각 다르므로 신청시 원하는 조를 선택해야 하며, 운전여부와 선택한 집결지 (올스톤 혹은 Park&Ride Exit 2)도 알려야 한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 증식 등이다

.회비는 개인당 20불이며 목요일 오후 6시에 신청을 마감한다. 처음 산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문의 및 신청은 617-780-5711로 할 수 있다.

일시: 2014년 8월 2일 토요일

장소/높이:

A조; Mt. Washington (6288 ft)

B조; Mt. Monroe (5372 ft)

C조; Lake of Clouds Hut (5012 ft)

산행시간: A 조; 약 6.5-7시간

B 조; 약 6.0시간 C조; 5.5시간

난이도: 5단계 척도법,

A조: 5 B조: 5 C조: 4

집결지:

ALLSTON 공영주차장 : 오전 6시

PARK&RIDE, EXIT2 OF RT93

: 오전 6:45분

bostonkorean@hotmail.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마켓 바스켓 파업, 한인들도 관심 표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신선한 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많은 고객을 보유했던 마켓 바스켓이 파업에 접어들며 정상 영업이 지연되자 한인들의 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마켓 바스켓 직원들은 지난 22일에 파업에 돌입했고 25일에는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고객들까지 7천여명이 시위에 참여해 마켓 바스켓의 전 CEO 아서 T 데모울라스(Arthur T. Demoulas)의 복귀를 요구했다. 친척인 아서 S가 데모울라스를 몰아내고 매사추세츠, 뉴 햄프셔, 메인 주에 위치한 71개의 마켓 바스켓 매장을 \$4.6 billion (약 47억원)에 내놓자 이에 격분한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

이번 파업은 마켓 바스켓을 매주 꾸준히 이용해오던 한인들의 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주 마켓 바스켓에서 장을 보던 벌링턴에 거주하는 주부 박 씨는 최근 매장을 찾았다가 텅빈 주차장과 진열대를 보고 놀랐다. “음식이 떨어져서 곧 장보러 가야 하는데 고민이다. 파업인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가계에 얼마만큼 부담이 가중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적인 부담은 너무 크다” 라고 걱정했다.

“마켓 바스켓에서 장을 보면 질 좋은 식품을 카트에 가득 실어도 100불 이내로 나오는데다 올해 전제품을 4%씩 세일하고 있었다” 는 액톤의 주부 한 씨는 “주위에 아는 엄마들 대부분이 마켓 바스켓을 이용한다. 이대로 매



텅 비어있는 마켓 바스켓 서머빌점

장이 없어진다면 가정마다 타격이 클 거다” 라고 말했다.

마켓 바스켓을 가끔 이용하던 주부들도 평소 애용하던 특정 식품들을 구입하지 못해 아쉬워하긴 마찬가지다.

“과일과 야채가 저렴한데 정말 싱싱했다. 다른 여러 마트와 마켓 바스켓을 같이 이용했는데, 앞으로 가게 부담이 있을 것 같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정 씨는 “과일과 야채가 저렴한데 정말 싱싱했다. 다른 여러 마트와 마켓 바스켓을 같이 이용했는데, 앞으로 가게 부담이 있을 것

같다” 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랐다.

싱싱한 랍스터와 불고기용 쇠고기감을 구입하러 마켓 바스켓을 종종 이용했던 윈체스터의 주부 김 씨 또한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켓을 이용하고 있다” 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벌링턴 주부 박 씨는 “한국에서는 소매업체가 파업을 해도 매장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분위기라 크게 불편하진 않았었다” 며 마켓 바스켓이 파업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한인 가정마다 입을 타격을 예상하며 놀라워했다.

현재 판매되지 못한 식품들은 매장에서 직접 푸드뱅크로 기부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영업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epark@bostonkorea.com

NE 대학 동문연합 친선 골프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대학 동문연합은 8월 23일 제 4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작년에 우천으로 취소되었던 골프 대회가 서강대학교 동창회 주관으로 2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경쟁보다 친선과 화합을 추구하는 이 대회는 NE 지역 7개 대학 동문회는 물론 타대학과 미국 대학 동문들도 환영한다.

두명이 한조를 이뤄 스크램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해 초보자도 즐길 수 있으며, 팀을 못 짜더라도 개인 참가가 가능하다. 개인당 100불의 참가비가 있고, 점심과 저녁이 제공되며 상품과 트로피도 마련된다. 상품은 골프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가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다.

한편, 대학 연합에서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각 대학 동문회로부터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미예술협회 국악 공연에 기부했다.

일시: 8월 23일 토요일 오후 12:30 (오전 11:45분까지 도착해야 함)

장소: Stow Acres Country Club (North course)

참가비: 개인당 \$100
문의: 서강대 동문 이재규
jaelee@gmail.com,
978-314-9620

bostonkorean@hotmail.com



2012년 대학연합 골프대회 참석자 사진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한 여인의 선택이 초래한 마켓 바스켓 위기

오랜 가문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결국 마켓 바스켓 사태로 미망인 에반스의 캐스팅 보트 쥐고 양가 사이에서 스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마켓 바스켓에서 여인의 힘은 위대하지만 위험했다. 46억달러 규모의 매출에 2만 5천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마켓 바스켓의 심장은 2013년 6월 한 여인의 변심으로 동맥경화를 일으켰다. 여인의 선택은 회사 CEO를 경질했고 그 과정은 마켓 바스켓을 아마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게 됐다.

여인의 이름은 라파엘라 에반스(Rafaela Evans). 마켓 바스켓 CEO 아서 T 데모울라스를 쫓아낸 실질적인 지배주주 아서 S 데모울라스 동생인 에반스의 부인이다. 에반스는 1993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주식을 물려받은 그녀는 지금껏 아서 T 데모울라스를 지지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자신의 형부이자 아서 T의 사촌 동생인 아서 S 가족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조지와 마이크 가문의 갈등
마켓 바스켓은 총 9명의 주주가 회사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형제였던 조지 데모울라스와 마이크 데모울라스(Telemachus "Mike" Demoulas)의 자녀들로 사촌 또는 결혼관계로 엮여져 있다. 이들 주주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촌 관계이면서 라이벌 관계인 아서 T 또는 아서 S를 필

두로 뭉쳐 있다. 마켓 바스켓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마켓 바스켓은 1916년 로웰(Lowell, MA)에서 그리스 이민자인 아테나시스(아서) 데모울라스가 양고기에 전문화된 식료품 가게를 열면서 시작됐다. 아서는 자신의 6명 자녀 중 2명인 조지와 마이크 데모울라스에게 가게를 팔았다. 한국 사고방식으로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웹사이트는 그렇게 밝히고 있다. 이들은 사업수완을 발휘해 15년 만에 구멍가게를 현대식 스타일의 슈퍼마켓 체인으로 변모시켰다. 이것이 마켓 바스켓의 시초다. 그러나 조지가 1971년 그리스 휴가중 심장 마비로 사망하면서 모든 경영권은 마이크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조지 가족과 마이크 가족의 법적분쟁은 시작됐다. 소송에 따르면 마크는 점차 조지 후예로부터 주식을 빼돌렸으며 약 8%의 주식을 계열사로 이체했다. 조지의 후예들은 마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마크의 자손들보다 조금 더 많은 50.5%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마크의 후손들은 쫓겨난 CEO 아서 T 데모울라스를 비롯해 3명의 누이들로 모두 49.5%의 주식을 보유했다. 3명의 누이는 프랜스 캐튼바흐, 글로리안 관햄, 캐런 파스케일 등이다.

조지의 후손으로는 회사 지배권을 회복한 아서 S 데모울라스와 두명의



마켓 바스켓 직원들은 쫓겨난 CEO 아서 T 데모울라스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누이들포틴 데모울라스, 다이아나 메리암 그리고 사망한 동생 에반스의 부인 라파엘라 에반스와 그의 딸 베네사 데모울라스로 총 5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태 태동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라파엘라 에반스는 4%가 조금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1.5% 주식에 대한 트러스티 중의 하나다. 라파엘라는 비록 조지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마크의 후손인 아서 T 데모울라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양가의 법적분쟁은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3년부터 라파엘라가 아서 S의 편에, 합류하면서 시작됐다. 아서 S는

최대주주로서 이사회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마켓 바스켓의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2명은 아서 T 쪽에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서 S 쪽에서 임명하며 3명은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3명의 독립된 이사들은 아서 S 쪽에 합류해 투표하고 있다. 독립된 이사 중의 한 명은 과거 아서 S 쪽 이사였던 적이 있어 이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중이다.

이사회를 장악한 아서 S 측은 가족 주주들에게 배당금 3억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법원도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에게 많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서 S는 마켓 바스켓 매각 원해 아서 T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2년간 아서 S측 가족에게 세금을 제외하고 네트 5억달러를 지급해 왔는데 이것도 모자랐다"고 말하고 "아서 S의 가족중에는 아무도 슈퍼마켓 영업 환경에 대해 모르는데 나를 제거한다면 그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밝혔다.

아서 T는 40여년이 넘게 마켓 바스켓의 운영에 참여해온 반면 그이 사촌 아서 S는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왔다. 그의 회사는 텐 마운틴 캐피탈로 뉴베리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다.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 현 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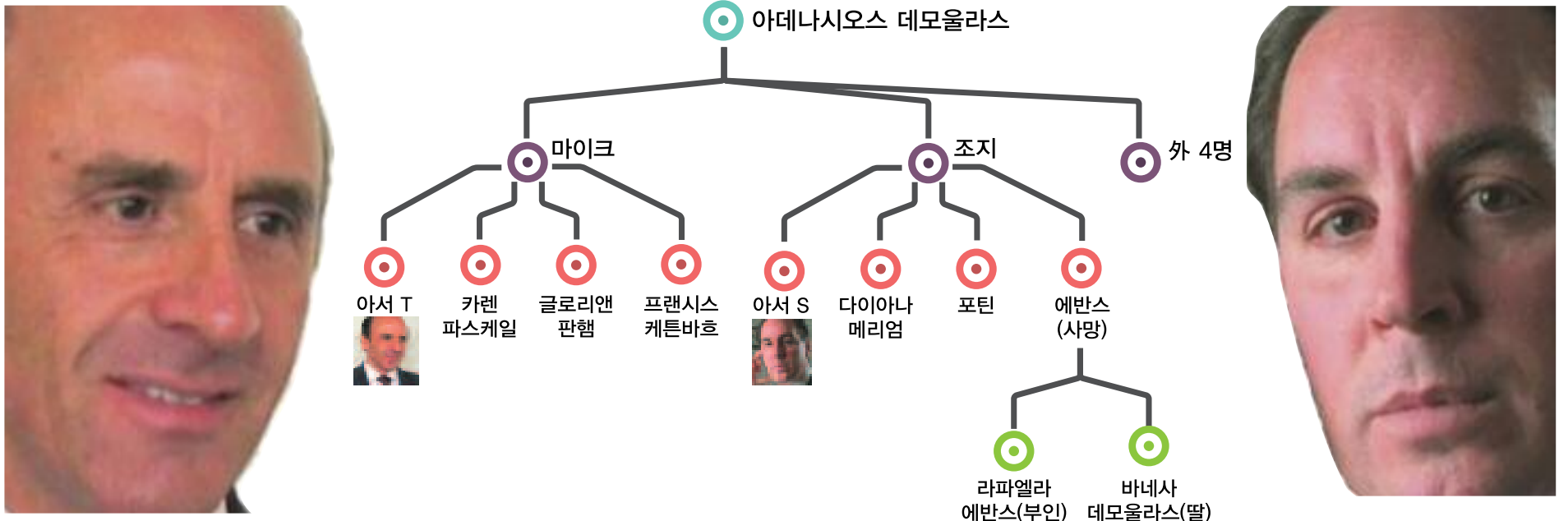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마켓 바스켓 주주 가족 구성도



직원들의 파업으로 계산대가 텅빈 마켓 바스켓

한 누이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다른 누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아서 S 데모올라스는 지난 2011년 봄 가족이 보유한 마켓 바스켓 주식을 증권사인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넘기는 것을 의논했다.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인수 조건과 어떤 식의 거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한 정보에 따르면 서버러스는 최소한 아서 S 데모올라스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성사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아서 S 데모올라스가 만약 마켓 바스켓 주식 다수를 확보하는 경우 회사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의 마켓 바스켓의 공동 CEO인 펠리카 소톤은 지난 2006년 투자회사인 서버러스를 비롯한 다수의 주주들이 참여해 인수한 알버트슨 슈퍼마켓의 CFO였었다. 최근 서버러스는 쇼스 (Shaw's)와 세이프웨이

(Safeway) 등을 인수하면서 슈퍼마켓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펠리카 소톤의 CEO 임명은 서버러스가 관계되어 있다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서버러스와 마켓바스켓의 구체적인 매매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버러스는 특히 마켓바스켓이 소유한 슈퍼마켓 부지 부동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은 마켓 바스켓이 매사추세츠 내 1500만스퀘어피트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켓 바스켓의 성공적 운영

아서 T가 경영을 시작한 2008년 이래 마켓 바스켓은 모든 방면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

매출은 1년 30억달러 이하이던 것이 4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직원들에게 인기있는 이익 분배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시켰다. 또한 고전의 방법을 사용했다. 다른 슈퍼마켓처럼 웹사이트 인터넷 쇼핑과 자동 계산대 설치를 거부해왔다. 아서 T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서비스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특히 이런 성공은 다른 슈퍼마켓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두었기에 가치가 있다. 스타트업 삼은 6개의 뉴햄프셔 마켓을 폐쇄했으며 쇼스는 뉴잉글랜드 12개 마켓의 문을 닫았다. 더구나 저가의 슈퍼마켓 웨그먼스가 보스턴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서 S 가족과 이사들은 아서 T를 다르게 평가했다. 아서 T는 ‘독재적인’ 경영 스타일을 고수했으며 이사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득은 줄었고 자신의 부인 및 처남과 불법적인 사업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7월 이사회가 아서 S쪽으로 넘어간 후 첫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 앤도버 소재 워덤 호텔에는마켓 바스

켓의 직원들과 지지자들 천여명이 아서 T를 지지하는 모임을 가지자 이사회는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를 거치고도 결국 아서 T를 바로 해임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이사회는 결국 아서 T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아서 T의 해임은 많은 종업원들의 반발과 도미노 효과를 창출했다. 아서와 더불어 2명의 임원이 해고되자 도합 277년을 회사에서 일해왔던 7명의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20일에는 회사에서 도합 280년을 근무했던 8명의 중간 간부들을 해고했다. 결국 마켓 바스켓 직원들은 파업을 선택했고 소비자들도 불매운동을 벌였다.

아서 T는 아서 S 가족의 주식을 사들여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를 비쳤고 이사회는 이를 검토 중이다. 아서 T가 다시 경영권을 잡는 방법은 라파엘라 에반스의 변심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유식과 회복이 있는 곳”

문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마켓 바스켓은 어떻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까

저렴한 가격, 더 많은 연봉과 직원혜택 주고도 더 많은 수익 미스터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사무실 직원들끼리 마켓 바스켓을 이야기하다보면 다른 곳에서는 100불에 달할 물건이 5-60불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런 질문이 도출됐다. 왜 마켓 바스켓은 다른 곳보다 저렴한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면서도 마켓 바스켓은 다른 슈퍼마켓보다 훨씬 나은 연봉과 혜택을 종업원에게 주고 있다. 더구나 마진율이 적기로 유명한 슈퍼마켓 사업임에도 업계 최고 이익을 내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가능할까.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식료품계 출판물인 더 그리핀 리포트를 발간하는 케빈 그리핀은 마켓 바스켓의 방법을 설명했다.

첫째, 마켓 바스켓은 부채가 없다. 부채 상환원금과 이자는 커다란 부담이다. 간단한 상식이지만 빚에 따른 월상환금액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재정적인 장점이다.

둘째 회사 본부의 규모가 작다는 이점이다. 연 40억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며 2만5천 직원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훨씬 큰 본사규모를 유지하는데 비해 마켓 바스켓 본사에는 125명의 직원이 일했었다. 예를 들어 구매담당은 6명의 직원이 일하는데 다른 소형 슈퍼마켓의 경우 구매담당은 4-5배의 직원이 일한다.

마켓 바스켓이 이처럼 적은 수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40시간 이상 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구조는 전통적으로 하급직에서 상급직으로 진급하는 내부 승진 제도와 이익 분배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무자도 이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하다. 분배 프로그램 어카운트가 충분하게 차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

상급직에 오를 즈음이면 이 직원은 여러 단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상태이고 따라서 하급직원의 입장에서 능률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것. 이직율이 적으므로 고용 및 훈련 비용이 줄어든다. 이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조다.

회사의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효율성은 가장 중요하다. 모든 상점은 같은 상품을 취급하며 회사는 큰 구매단위로 저렴하게 구입한다. 이는 끊임 없이 선반 물품을 재구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구매담당은 생산업자들과 관계형성이 핵심이기에 결코 거래처를 잘 옮기지 않는다. 이들의 신뢰감 있는 구매는 생산업자들이 마켓 바스켓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다. 최근 파업에 직원은 물론 물품 제공업체들도 함께 아서 T를 지지했던 것은 여기서 비롯된다.

또한 이외에도 유통에 상당부분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효율성과 회사재정 건전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물류팀도 애타투 파업에 참가해 배달을 거부했던 것은 이런 이유다.

hsb@bostonkorea.com

마켓 바스켓 비정상 운영 지속되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저렴한 물품과 신선한 식품으로 유명한 마켓바스켓의 정상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켓바스켓의 직원들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자신들의 파업을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마켓 바스켓 직원들 파업에는 현재 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까지 합류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들의 요구는 쫓겨난 회사 CEO 아서 T 데모울라스(Arthur T. Demoulas)의 대표직 복귀이며 이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매사추세츠, 뉴햄

프셔의 각 정치인들은 거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마켓 바스켓 직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경영진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마켓바스켓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원들이 물품 수송을 거부하고 각 지역 마켓에서는 항의 데모를 벌이고 있으며 소비자들까지 동참해 보이콧을 벌여 마켓 바스켓의 일부 선반은 텅빈 채로 남아있다.

전 CEO 아서 데모울라스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구매해 다시 경영권에 복귀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지난 25일 회사 이사회는 이를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새로운 CEO 8월 4일 까지 업무복귀 최후통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마켓 바스켓 신 경영진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직원들에게 오는 8월 4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밝혔다.

새로운 CEO 펠리샤 손톤과 제임스 구치는 지난 7월 17일 자신들의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한 적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파업에 나섰다. 대부분의 점장들은 아서 T 회장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사임할 것이라는 청원

서에 서명한 상태다.

마켓의 직원들은 손님이 없고 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해 마켓 밖에서 항의 데모를 하고 있으며 본부와 유통 창고직원들은 출근을 거부한 상태다.

신 경영진들은 오는 8월 4일 기존의 직원들 중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직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외부인들에게는 6일 박람회를 개최한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힘내세요!

오랫동안

기력회복 및 스트레스엔 역시 홍삼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스트레스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독성현상을 일으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심신 장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홍삼은 복합 스트레스와 피로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으며 또한 육체적 피로와 관련한 항피로 효과에도 탁월하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 출처: 생활속의 고려인삼 (사단법인 고려인삼학회 /2010)>

NEW



야외스케줄이 많은 당신을 위해
홍삼정을 밖에서도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신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고등학생, 대학 학점 취득 무료 프로그램

의회 재정 지원 삭감 및 증액 반복, 잘 모르는 경우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 바다 기자 = 고등학생들이 대학수업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미리 수강해 학사 학위를 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록자가 늘고 있다.

Commonwealth Dual Enrollment Partnership(이하 CDEP)은 최근 몇 년간 등록 학생수가 많아졌지만 아직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며 매사추세츠 교육부 관계자들은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밝혔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주의회가 지원금을 자주 삭감해 프로그램 활성화가 어렵지만,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높여 주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나 소수 민족의 학생들의 등록률이 특히 높고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주립 대학, 유메스 교육 기관 등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CDEP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좋은 성적을 받고, 학위를 따고, 제대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학비 부담도 현저히 줄인다.

찰스 허슬비(Charles Husselbee, 19) 학생은 윈첸든 공립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비즈니스로 Associate degree를 받았다. 마운트 와쉴렛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기학점을 따면서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았고 앞으로 유메스 엠허스트의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해 2년을 더 공부하고 학사 학위를 딸 예정이다. CDEP를 통해 허슬비 학생은 만불 정도의 학비를 절약했다.

이라크에서 4년 전에 이민 온 에버렛 고등학교의 라샤 나드히르(Rasha Nadheer, 16)학생도 프로그램을 통해 벙커힐 커뮤니티 컬리지에

서 현재까지 두 수업을 수강했고 앞으로 꾸준히 등록해 대학 학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CDEP는 1993년도 설립 이후 180만 달러 재정이 삭감됐고 그후 6년간 지원금이 끊긴 상태였다가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2백만 달러를 지원하며 부활시켰다. 그 후 지원금이 한번 더 줄어 등록학생이 3100명에서 1600명으로 감소했으나 이후로는 재정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다. 작년엔 2300명의 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비싼 대학 등록금, 대학 진학을 대비하는 목적, 프로그램의 좋은 인지도 등으로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미국 전역의 Dual Enrollment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리서처 조엘 바가스(Joel Vargas)씨는 "프로그램의 수요에 비하면 주정부의 재정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epark@bostonkorea.com

구글 글래스, 보스톤 방문 로드쇼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구글 글래스(Google Glass)가 보스톤을 방문했다. 구글은 구글 글래스를 알리고 대중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사우스 보스톤에서 로드쇼 행사를 가졌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 행사에 많은 이들이 찾아 구글 글래스에 관심을 보였다. 사전에 예약을 한 사람 위주로 구글 글래스

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구글 글래스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주문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상용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1,500달러라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한 번 시험 삼아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격이 비싼 편이라 구글은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기능은 가이드고(GuidiGo)라는 앱이다. 이 앱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관람할 때 구글

글래스 화면에 지도와 작품 설명 등을 보여줘서 관람의 편의를 돕는다.

워드 렌즈(Word Lens)라는 앱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워드 렌즈는 여행객들을 위해 개발된 앱으로 외국어로 써있는 간단한 이정표나 간판 등을 구글 글래스가 인식해 바로 영어로 번역해주는 앱이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구글 글래스의 기능에 신기해 하면서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젊은이들 술과 커피에 지출 많아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젊은 청년 층의 알코올과 카페인 소비가 다른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사추세츠의 청년들은 다른 주보다 주류와 커피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해리포터를 읽고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하며 자란 밀레니엄 세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소비를 하기 위한 수입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개인의 소비 성향을 조사하는 레벨 머니(Level Money)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지출에 죄의식을 덜 느낀다. 알코올과 카페인, 패스트 푸드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의 젊은 세대는 이런 경향의 선두에 위치해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밀레니엄 세대는 미국 내의 다른 주보다 술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술을 마시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으며,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미국 내 2위다. 매사추세츠 주의 밀레니엄 세대는 연평균 277달러를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주는 307달러를 지출하는 메인 주가 유일하다. 미시시피 주는 연간 47달러만을 지출해, 젊은 층이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가장 낮았다.

젊은 층이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커피숍은 스타벅스다. 미국 밀레니엄 세대의 45.5%가 스타벅스를 방문하고 있고, 던킨 도너츠는 12.9%의 선호도로 2위를 차지했다.

매사추세츠 젊은이들의 패스트푸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미국 내 44위를 기록했다. 버몬트, 커네티컷, 뉴욕 주 등이 젊은 층의 패스트푸드 소비가 가장 적었으며, 청년들이 패스트 푸드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주는 오클라호마 주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에 대한 선호도는 맥도널드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치폴레과 서브웨이가 그 뒤를 이었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BEDFORD 지역 단독주택

\$619,000, 3 BEDS, 2 BATHS, 2,010 SF, 1.3 Acre Lot Siz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매사추세츠 토네이도 발생 잦아졌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28일 리비어에 강타한 토네이도는 보스톤을 비롯한 미국 전역의 커다란 뉴스거리였다. 토네이도가 휘귀한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더 많은 관심거리였기 때문이다.

리비어에 안착한 토네이도는 푸히타 규모 2 즉 중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래 뉴잉글랜드를 강타했던 토네이도 중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것 중의 하나다. 20, 21일 양일에 걸쳐 뉴잉글랜드에는 다른 2개의 토네이도가 덮쳤지만 규모 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토네이도 푸지타 규모		
규모	바람속도	피해
F0	40-73마일	경미
F1	74-112마일	보통
F2	113-157마일	상당
F3	158-206마일	심각
F4	207-260마일	황폐화
F5	261-318마일	상상불허

뉴잉글랜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발생한 토네이도 수는 아래 차트를 참고해도 적지 않다.

보스톤을 강타했던 토네이도는 지난 1950년도에 발생했으며 그 이후 뉴잉글랜드 지역엔 총 163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는 대부분 가장 온도가 높은 오후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지역에 발생하는 토네이도 또한 남중부에 발생하는 토네이도의 사촌 정도로 볼 수 있다. 중서부 지역의 경우 대기조건이 동부에 비해 훨씬 크고 강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몇 년전 스프링필드 토네이도와 1953

년 토네이도의 크기와 규모는 캔사스, 오클라호마 등의 일상적인 토네이도와 같은 것이다.

많은 뉴잉글랜드 지방의 토네이도는 결국 회오리 바람 또는 돌풍(Gustnado) 정도에 그칠 수 있다.

돌풍(Gustnado)은 토네이도와 구조가 같지만 돌고 있는 정점이 폭풍구름의 중앙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토네이도와 다르다.

리비어의 토네이도는 몇가지 이유에서 흔치 않는 것이었다. 토네이도는 오후에 일어나는데 반해 아침에 일어났다. 둘째 보스톤이 속한 서퍽카운티에서는 지난 64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토네이도다. 셋째 푸지타 규모 2에 속하는 토네이도

뉴잉글랜드 연간 토네이도 발생 건수 (1950-2010)		
주	연발생건수	인근지역
커네티컷	1.5	2.8
메인	1.9	0.5
매사추세츠	2.5	2.4
로드아일랜드	0.2	1.1
버몬트	0.7	0.7

는 흔치 않다. 그래서 이제 보스톤에서도 토네이도가 일상화 되는가라는 질문이 도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보도되는 것 뿐이다.

미들섹스 카운티에서는 1950년 이래 토네이도가 가끔씩 발생해 왔다. 과거와는 달리 카메라는 거의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고 과거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던 것들이 카메라에 잡히고 유튜브 등에 올라가서 세계가 지켜본다. 이것이 다음날 아침 뉴스에 보도되곤 하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푸지타 규모 2에 해당하는 토네이도가 리비어를 급습해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토네이도, 보스톤인근 리비어 강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차로 20분여 거리 떨어진 리비어시에 28일 아침 토네이도가 강타, 일부 가옥을 파손하고 아름답리 나무를 통째로 넘어 뜨리는 등 재산피해를 냈다.

이번 토네이도는 최대 풍속 120MPH의 강풍을 동반한 것으로 약 규모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기상청은 잠정적으로 발표했다. 최소규모는 0에서 최대규모 5까지 분류되는 토네이도의 중간크기에 해당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리비어와 첼시 경계부근부터 약 2마일에 걸쳐 피해를 입혔으며 폭은 약 .25마일 정도였다.

기상청의 보고서는 "토네이도가 리비어 브로드웨이인 107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대부분 리비어 센터 전체에 걸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곳 저곳의 나무가 쓰러졌으며 이로 인해 거리가 폐쇄됐고 차들을 내리 덮쳤다. 리비어 경찰은 지붕 붕괴와 가스 누출 등의 피해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도로 1A VFW파크웨이는 폐쇄됐고 브로드웨이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돌고 신호등마저 길에 드러누웠다. 브로드웨이(107)에서 60번도로까지 리비어 스트리트 또한 폐쇄됐다.

덴 리조 리비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다고 밝히며 거주민들이 침착하고 인내심있게 기다려주기를 요구했다. 리조 시장은 "지금까지는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드별 패트릭 주지사는 리조 시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어 시는 "브로드웨이와 60번 도로의 사용을 피해달라고 부탁하고 주 및 연방기관들과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 경찰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가능하면 리비어 시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리비어에 거주하는 L씨는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아름드리 나무가 통째로 쓰러진 것은 이 지역에 살면서 처음 봤다. 무서워서 피해 있다 저녁 늦게야 들어간다. 지금은 전기가 모두 복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스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신원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야당, '지도부 총사퇴'로 혼란, 당 쇄신의 기회이기도

박영선 원내 대표가 대표대행 맡아 비대위 구성... 연내 조기전대로 갈듯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7·30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도부 총사퇴로 혼란과 격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인사 실패 속에서도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사실상 전멸하고 텃밭 호남(순천·곡성)에서도 패배했다는 점에서 참패의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선거를 총괄했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지난 3월 창당 이후 만4개월만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났다.

김한길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사무총장도 "선거 패배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당안팎의 욕구가 분출할 것이라 관측이 많다.

구심점을 잃은 당은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공백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

환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 이전 단계로 지난 5월 선출된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

당헌의 부칙에는 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와 비대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당내 제 세력간 논의가 필요하다.

선출된 비대위원장은 2016년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을 놓고 펼쳐지는 전당대회를 연내 개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당초 구주류 진영인 친노(친노무현)와 정세균계, 486진영 인사들은 선거 패배시 곧바로 '조기전대 개최' 주장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이 혼란스런 만큼 아직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당내 계파들의 움직임은 점차 빨라지는 분위기다.

정세균계 인사들로 구성된 서강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과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와 관계없는 계획된 모임이지만 자연스럽게 선거패배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는 전언이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전반적으로 선거 패배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을 빠르게 재건



김한길(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1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고 이에 힘을 모으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당내 개혁성향 모임인 '혁신모임'도 이날 오찬을 갖고 향후 당의 앞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 상황에서 말은 필요가 없다"며 "당의 재건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도성향인 4선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이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이 위기

가 또 다른 분열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와 쇄신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내달 4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비대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당 전락홍보본부장 등은 내달 1일부터 단위

별 비상회의를 소집해 당 재건과 혁신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위별 비상회의는 상임고문단 회의를 시작으로 의원 선수별 회의, 시동당위원장 회의를 잇따라 열기도 했다. 당분간 새정치연합에서는 당 재건과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백화제방식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계파들간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정치과정이 진행될 듯하다.

pjy1@news1.kr

새누리당 예상 밖 재보선 '압승' 이유는... 승인과 패인

野 공천파동, 박근혜 정부와 선긋기, 경제살리기 표심 자극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실패-전략실패-정책실패 등 3재(災)로 자멸했다." "새누리당의 경쾌함이 새정치연합의 무거움을 이겼다"

역대 최대인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자 이같은 분석들이 쏟아졌다.

6·4 지방선거 때와 같은 박병의 승부가 재연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석권하며 11석을 차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마저 새누리당에게 내어주며 고작 4석만 얻어 참패의 치욕을 뒤집어썼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까지 6·4 지방선거때와 똑같이 '무능 정부 심판론, 세월호 심판론'을 앞세웠지만, 민생 및 책임국정 프레임으로 전환한 새누리당을 깨기는 역부족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데다 전략공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면서 제1야당이 서울의 유일한 지역구인 동작을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여기에서 기 후보가 애초 출마를 선언했던 광주 광산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축소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 선거 막판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 투표용지에 사퇴 후보들의 이름이 남아 있는 등 후보 단일화

도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큼 과급력이 크지는 못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선거가 치러진 15개 지역구 중 원내 차지하고 있던 5석마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인사 파동, 유병언 시신 발견,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약재가 겹쳤지만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전략공천으로 자충수를 두면서 선거 초반 기선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 민생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워 새정치연합과의 차별화에 공을 들인 것이 표심을 움직였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웅 민권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새정치연합은 정권 심판론을 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 마련된 7.30 재보궐선거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박수치고 있다

고 선거에 임했는데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심판론의 직접 대상인 친박계에서 비주류로 변하면서 심판론 자체가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인사 실패 등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존재했지만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야권 지

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외면받은 데다 지역 발전론이 유권자들에게 먹히면서 표차가 커졌다"고 말했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본부장도 "새정치연합은 잘못된 공천 이후 내부의 변화 없이 외부 환경에만 의존한 것이 선거의 패배로 이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haru@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3 – 8/1

가을학기 시작 9/9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AUG. 1, 2014 - AUG. 7,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ENJOY GREAT PRICES ON ALL YOUR KOREAN FAVORITES IN SNACK SIZES!

ORION Gosomi Snack 오리온 고소미 11.96oz. **\$2.99**

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11.85oz. **\$1.99**

Heat wave Summer Save Event

ENJOY ALL YOUR SUMMER FAVORITES AT HMART! COLD NOODLES, SUMMER FRUITS, ICE CREAM & SO MUCH MORE!
 이보다 더 뜨거운 세일은 없다!

BBQ AUTHENTIC
 양념 별집 돼지 목살 스테이크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CT BUTT STEAK
\$4.99 lb.

팔도 비빔면
 PALDO BIBIM MEN 4.58oz. x 6ea./pkg.
\$2.99

빙그레 메로나
 BINGGRAE MELONA MELON FLAVORED ICE BAR 2.7fl.oz. x 8bars/pkg.
\$3.99

FR/SAT/SUN LIMITED TIME OFFER
 화이트 넥타린
 WHITE NECTARINE **\$1.49** lb.

오징어포
 SEASONED DRIED SQUID **\$19.99** lb.

코맥스 아이스 박스
 KOMAX ICE TANK Blue/20L/ea.
\$27.99

해모름 롤전병과 함께 즐기는 한국 전통의 맛!
Korean Crispy Waffle Roll!
 Let the good times roll with all of our yummy flavors!

HAIOREUM Crispy Waffle Roll
 All Varieties/7.23oz. **\$2.99**
 All Varieties/14.8oz. **\$4.99**

롤전병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Napa Cabbage 배추 box \$9.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0.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크용 냉동 삼겹살 lb. \$4.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TYSON Cornish Hen 냉동 영계 lb. \$1.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냉동 차돌박이 lb. \$8.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Live Jeju Fluke 제주 활광어 lb. \$13.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Mackerel Pike 냉동 공치 50-60's/lb. \$1.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Salted Mackerel 자반 고등어 400-600's/lb. \$3.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STONYFIELD Organic Milk 스톤필드 유기농 우유 All Varieties/64fl.oz. \$3.4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NISHIKI Premium Grade Rice 니시끼 쌀 15 lbs. \$14.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엘로우) 15 lbs. \$10.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GWANGCHUN Roasted Seaweed with Green Tea 광천농협 녹차김 0.7oz. x 10ea./box \$9.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BADAAECHAN Roasted Seaweed Laver 바다애찬 장흥군 무산 재래김 0.14oz. x 8ea./pkg. \$2.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Hot Pepper Paste 청정원 쌀로만든 명품 고추장 6.6 lbs. \$14.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스키라차 소스 28oz. \$2.5 ea./for</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THREE CRABS Fish Sauce 삼계 피쉬소스 24oz. \$2.7 ea./for</p>
<p>ALCHAN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알찬순대 1.5 lbs. \$7.95</p>	<p>DONGWON Canned Tuna with Hot Pepper Sauce 동원 고추참치 5.3oz. x 4cans/pkg. \$7.99</p>	<p>HAITAI Nougat Ice Bar 해태 누가바 2.35fl.oz. x 3bars/pkg. \$3.99</p>	<p>HELLO HOME Stainless Steel Kettle w/ Strainer 헬로홈 스테인리스 티망 주전자 5L/2.1 \$14.99</p>	<p>HELLO HOME Stainless Steel Noodle Cooker 헬로홈 스테인리스 라면 포트 ea. \$16.99</p>	<p>ZOJIRUSHI Stainless Steel Lunch Jar 조지루시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통 SL-MEE07AB/ea. \$29.99</p>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하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 S/MA-128 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 S/MA-128 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하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하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www.facebook.com/hmartofficial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이정현, 26년만에 호남에 여당 깃발

(순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 텃밭에서 당선되면서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이정현 의원은 31일 자정무렵 완료된 개표결과 6만815표(49.43%)를 득표해 4만9611표(40.32%)를 얻은 서갑원 후보를 9.1%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당선됐다.

순천·곡성 선거구의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1%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번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지만 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이번은 현실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 '예산 폭탄과 황제공약'을 내놓아 지역 민심을 흔들었다.

이어 순천시민의 오랜숙원인 순천대 의대 유치, 정원박람회장 제1호 국가 정원지정, 청년실업 완화를 포함 일자리 창출, 대기업유치 등을 약속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26여년만에 광주·전남에서 여당(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신화를 이뤘다.

결국 '이정현의 승리는 선거혁명이고 대변화의 시작'이라는 그의 목소리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당선으로 야당에게는 '텃밭'에서도 패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였던 지역주의의 타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무능한 정부, 불통정권, 대선공약 파기 등 산적한 과제를 남긴채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순천 곡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죽도록 일하고 싶다"며 "순천 보은, 곡성 보은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하늘처럼 받들고 은혜를 갚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순천·곡성의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선 확정 직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은 순천·곡성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평가해주



이정현 순천·곡성 보궐선거 당선자

시고, 위대한 선거 혁명이 결실을 맺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당선 배경에 대해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의 높은 주권 의식 때문"이라며 "이제 어느 당도 잘못하면 심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면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newsmaker82@news1.kr

이정현 당선 놓고 광주·전남지역선 '논쟁 중'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를 두고 갖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9.43%의 득표율로 40.32%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를 눌렀다.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새누리당 계열 간판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혁명'을 이룬 것이다.

이를 두고 순천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과, 국정 운영에서 각종 참사를 일으킨 여당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에서 '자존심도 없는 투표'라는 비판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당선인이 50% 가까운 득표를 한 만큼 나머지 50%의 투표자, 나아가 지역민 절반은 이 당선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인을 찍었다는 박모(38·순천시)씨는 "이제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누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정현은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실제로 권력 핵심에 가까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예산 폭탄"으로 지역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당선되면 국회 의회관 사무실에 '호남예산 지원 전초기지'를 만들어 호남지역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모(53·순천시)씨는 "이번 선거는 '혁명'이 아니라 순천이 '배알도 없는 도시'로 전락한 부끄러운 선거"라며 "인물을 떠나서 최근 엄청난 실정을 저지른 현 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을 당선시킨 것은 '영혼이 없는 투표'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대자들은 이정현의 인물됨을 떠나서 사회·역사적 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표로 심판해야 할 대상을 '인물론'과 '지역발전론'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에 속아 자존심을 버린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는 호남을 텃밭으로 여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kjsun@yna.co.kr

손학규 "꿈을 접는다" 정계은퇴 선언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다는 약속 못 지켜 송구스럽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7·30 경기 수원병(팔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손학규(66)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31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손 고문은 21년간 정치 역정에서 옛 한나라당 대권주자라도, 구 민주당의 대권주자라도 활동했던 여야를 넘나든 중도 정치인으로 족적을 남겼다.

경기 시흥 출신의 손 고문은 서강대 교수 시절인 1993년 민자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5대 총선에 재선됐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16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손 고문은 2002년 경기지사에 당선됐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주자로 활동하다,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했다. 이후 야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가 야당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으나 문재인 후보에 패했다.

손 고문의 정계 은퇴는 같은 세대의 야권 대권 잠룡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

고문이 잠룡에서 제외됨에 따라 야권 대권 구도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 보인다고 보인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정치를 떠난다"며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게 저의 오랜 신념이다. 저는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정계은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저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정치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1993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눈에 띄는 국민의 사랑과 기대 받았다"며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시베리아땅'으로 나선이래 민주당과 함께한 제 정치역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보람있는 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시한번 고백한다"고 했다.

손 고문은 지난 2007년 3월 한나라

당을 탈당한 후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했으나 '한나라당 출신'이란 꼬리표를 쉽사리 떼지 못해 적잖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그는 "정치인은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라며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저의 생활철학이다. 지금은 제가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정치의 자세에서 그렇고 또 민주당과 한국정치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국민 여러분께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땀땀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누리는 세상, 모두 함께 일하고 일한만큼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나누는 세상,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려했던 제 꿈을 이제 접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손 고문은 "능력도 안되면서 젊어지고 가려했던 모든 짐들을 이제 내려놓는다"며 "그동안 정치생활을 통해 얻은 보람을 고이 간직하고 아쉬움 뒤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은퇴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고 떠나려 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성실히 살겠다"고 했다.

은퇴 회견 후 손 고문은 재보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했고, 또 새정치연합의 중진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말했다.

이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이번 선거는 미흡했다는 생각"이라며 "그 한 가운데 제가 있다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고, 새정치연합에 대한 기대가 충족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새정치연합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갖춰야겠다"면서 "그러기 위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저의 정계은퇴를 계기로 새정치연합의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박근혜정부를 향해선 "국민을 어렵게 알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gayunlove@news1.kr

대책회의 “국정원, 사실상 세월호 운항 당사자”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관여 의혹…정보 공개해야”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과 관련해 27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사실상 세월호 운항 이해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해당 문서에 들어 있는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도색작업', '바닥장판 수리' 등은 일반적인 보안점검이 아닌 선주나 배 운항 당사자가 할 법한 내용"이라며 "국정원은 세월호의 증·개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만큼 국민에게 관련정보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난해 2월 이전에 해당 지시를 내렸는데 세월호가

증·개축되던 시기와 일치한다"며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2012년 10월에 일본에서 사와 지난해 2월까지 증·개축한 것을 볼 때 국정원이 불법 증·개축에 관여했거나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국정원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20일간 선박에 대한 테러 등을 대비해 보안점검을 실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서에 따르면 세월호 측이 2월27일에 이미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증거보전절차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들어 있던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6일 작성돼 27일 최종 수정된 이 문서에는 약 100여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돼 있고 천정칸막이·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용접, 배수구 작업, CCTV 추가 신설작업,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천정등 수리, 침대등 교체 등 배에 대한 상세한 작업지시가 써 있다.

특히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수당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한편 대책회의는 전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및 시민들과 함께한 촛불집회에서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진상규명 특별

[선내 여러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업내용	책임자	비고
1	경리리플(전사실) 청결관리 및 도색작업	거성중합	5~6일
2	자판기 교체용 띠어플 설치 여부?	일치장님	보고
3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위치선정	일치장님	보고
4	오락실 바닥 타일타일 신환 및 천장 도색작업	거성중합	수리신청서
5	배비휴게방 출입문 DOOR 상판지 및 유리창 보수	거성중합	수리신청서
6	리프팅용 유리 파손된 천장보수	거성중합	수리신청서
7	연회실 유리파손된 천장보수	거성중합	수리신청서
8	화장실 타일 및 벤치 신환 공사	홍성산기	
9	여성사육실 누수부분 용접 및 타일 마무리작업	홍성산기	

세월호에서 찾아낸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캡처

법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와 국정원이 무슨 관계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서에 대해 "국정원이 왜 세월호

의 상태를 체크했고 왜 지적했는지, (국정원이) 유병언과 세월호와 무슨 관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국정원, 세월호 의혹 전면 부인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작성자는 사망한 듯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황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세월호 운항 점검과 관련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국정원은 세월호 선원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관련 문건 작성자도 사고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원 현황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지난 25일 발견된 문건의 작성자는 5월 15일 시체가 발견된 직원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국정원에 해명을 요구한 8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9일 △세월호 보안점검 예비조사를 숨긴 이유 △보안과 무관한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유 △공개된 세월호 문건 작성자 조사와 문건의 파일명을 밝힐 것 △예비조사, 본조사의 내용을 밝힐 것 △세월호 증개축 개입 여부 △2000톤 이상 내항선 17개 중 세월호만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이유 등 8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정원 측은 "공식 보안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어서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고 객실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와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은 보안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세월호가족대책위가 주장한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과 작업수당 보고서 제출, 자판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보안점검과 그에 앞서 사전 준비 당시 세월호 증·개축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세월호만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신 간사는 또 청해진해운 관리부장이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 오전 국정원 인천지부 인천항만 담당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각 보고한 것과 관련해 담당직원이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고가 난 뒤 보안점검 하는 6개 기관에 2번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haru@news1.kr

“꿈은 이루지 못했으나 떠나는 손학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7·30 경기 수원병(팔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패배와 야권 중진 지도자로서 이번 재보선에서의 야당 참패의 책임을 지고 31일 '정계은퇴'를 결단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비운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손 고문은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 출신이다. 서울대·서강대·인하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눈에 띄어 정계에 입문했다.

1993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 후보로 경기 광명에서 당선돼 14대 국회에 첫 입성한 후 15, 16대, 18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손 고문은 조영래 변호사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더불어 학생운동을 주도한 재야의 대표적 인사이다.

서울대 재학시절 한일협정 반대 투쟁과 삼성그룹의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규탄 시위에 참여해 무기정학을 당한 뒤 강원도 함백탄광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런 손 고문에게 정치 입문 당시 여당인 민자당 후보로 국회의원 뺨지를 단 것을 두고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손학규가 맞나"의문을 나타낼 정도였다고 한다.

정치학 박사 학위에 대학 교수를 지냈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는 4선의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언뜻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의 정치 역정은 외로운 길이었고 순탄치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자 비주류의 길을 걷던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범야권으로 넘어왔으나 그에게 대선주자의 기회는 결국 오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2007년 3월 이명박, 박근혜 후보와 함께 '한나라당 빅3'로 불리던 그는 한나라당 탈당을 결행하는 인생 최대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당시 모든 참모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했던 것이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계 은퇴 기자회견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시베리아 땅'으로 나선이래 민주당과 함께한 제 정치역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보람있는 여정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손 고문의 이 선택은 그의 목을 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랜겐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고, 이는 고비고비마다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다.

손 고문은 2008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출신과 조직력에 모두 밀려 패했다. 이후 손 고문은 2010년 10월 강원도 춘천에서 2여년간 침거하다 정계복귀 선언 두달여 만에 민주당 대표를 맡는 등 대권을 향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이 무렵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민생대장정 행보가 전개됐다. 손 고문은 2011년 초 전국 100여곳의 민심 현장을 방문하는 희망대장정 행보로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적 인지도 높였다.

그러다 2012년 대선 경선과정 역시



친노(친노무현)의 조직력에 밀려 문재인 후보에게 고배를 마셔야 했다.

1947년생으로 올해 68세인 그에게 3년 뒤인 2017년 대선은 마지막 대권 도전이다. 손 고문은 이번 7·30재보선을 발판으로 대권을 향한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선당후사(先黨後私)'정신으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내리 5선을 한 수원 팔달구에 출마했으나 그가 극복하기에 새누리당 텃밭의 벽은 높았다.

손 고문은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게 저의 오랜 신념"이라며 "저는 이번 7·30재보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정계은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고별 기자회견에서 그는 "정치인은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하고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지금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듯이 이날 정계 은퇴 역시 그의 신념에 따른 결과인지 모른다.

그가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이 더욱 애잔하다.

pjy1@news1.kr

연준, 2분기 깜짝 성장에도 상당기간 현 금리 유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미국의 2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30일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후 시장 예상대로 양적완화 감축(테이퍼링)을 발표했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월간 350억달러의 자산매입 규모를 다음달부터 250억달러로 100억달러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6번째 테이퍼링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테이퍼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연준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오는 10월이면 완전하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준의 회의 결과 발표에 앞서 나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치인 3.0%를 웃도는 4.0% 증가로 나타나 미국 경제가 개선 흐름에 있다는 연준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다만, 연준은 양적완화가 중단된 이

후에도 사실상 제로금리(0~0.25%)인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연준이 미국 경제 개선세를 인정하면서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므로 당분간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2분기 GDP 성장률과 FOMC 성명서 발표 속에서 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하락한 반면, 스탠다드앤amp;포스(S&P) 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당초 이날 증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4.0%로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미국 경제 활동의 근간인 소비지출도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어 상승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곧이 같은 경제 개선세가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져 3대 지수는 결국 하락세로 반전됐다.

◇ 경제 개선세 지속시 금리 인상 주장하는 매파 힘 얻을 것

이 같은 시장 반응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 결국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는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노무라증권의 엔스 노드빅 글로벌 G10개국 외환전략 담당 대표는 "연준은 경제 개선세와 인플레이션 정상화를 인지하고 있다"며 "3분기에도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 연준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장은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들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게 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1일 발표될 이달의 고용지표들이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 수와 실업률 등이 포함된다.

시장은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상이 대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는 내년 중반에 이뤄질 것인지, 혹은 내년 3분기에나 시작될 것인지를 놓고 설전

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양호한 경제지표들이 나오면 연준이 예상보다 앞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일각에선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일단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날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양적완화가 종료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는 부적절하다"며 연준의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전략가들은 매파인 플로서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날 시장에 혼란을 주는 데는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 나서지 않을 것 견해도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견해도 만만치 않다.

제프리스 증권의 와드 맥카시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2분기 경제 개선에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보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추구하고 있다"며 "연준은 2분기의 깜짝 성장 전인 1분기엔 경기가 위축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맥카시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행동에 나서려면 올해 남은 2분기 모두 3%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뱅크의 조셉 라보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가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을 4.2%로 가장 높게 전망한 바 있다. 그는 하반기 성장률은 3.5%로 보고 있다.

라보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수록 금리 인상 규모는 소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lastuncle@news1.kr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 중산층들의 보스턴 방문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야말로 보스턴은 중국 학생들로 넘쳐 나고 있다

중국 중산층, 보스턴 명문대 탐방 열풍

(보스턴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유명 대학들이 있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 중국 중산층 학생들의 여름방학 탐방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곳이다.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경제력을 쌓은 중국 중산층 자녀가 미국 명문 학교를 미리 체험하고 입학 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 근교 메드포드에 있는 텡스데에는 대규모 단체를 위해 별도의 투어를 운영하는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 학교 입학 담당 부관리인인 젠 시몬스는 중국인 방문자와 지원자가 늘고 있다며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20~30명씩 그룹을 지어 여름에 방문하곤 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에 있는 '엘리트 스칼라스 차이아나'는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비행기와 숙소, SAT 수업

, 학교 탐방 등이 포함된 3주짜리 여름 프로그램을 1만 1천 달러(1천126만원)에 제공하고 있다.

'엘리트 스칼라스'의 한 상담원은 "하버드는 중국 엘리트 사이에서 언제나 인기가 있었지만 2000년 딸을 하버드대에 입학시킨 중국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하버드걸'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 중산층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수많은 학생과 가족이 보스턴을 방문하면서 중국 하이난 항공은 지난달 베이징과 보스턴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만들었고, 7월과 8월에는 취항 횟수도 주 4회에서 7회로 늘렸다.

이런 열풍은 보스턴 지역 대학의 학위가 가진 명성과 함께 급성장한 중국 중산층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앨런 굿맨 국제교육원(IEE) 대표는 "중국인 방문자와 등록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5년 사이 급격하게

이뤄진 중국 경제 성장의 결과"라며 "중국 중산층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가족은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말했다.

IEE에 따르면 지난해 보스턴 지역의 중국 학생 숫자는 1만 913명으로, 2009년 3천800명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이스턴대학교, 보스턴 대학교는 모두 2012-13년 외국인 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한 학교 25위 안에 올라 있다. 중국인은 외국인 학생 중 가장 많은 27%를 차지한다.

대학에서도 부유한 중국인 유학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 학교의 지원이나 장학금 없이 6만달러(6천100만원)에 이르는 학비 전액을 내는 중국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mihee@yna.co.kr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 확산 치사율 90% 죽음의 바이러스?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중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화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1200여 명이고 이중 66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WHO에 따르면 감염자 중에는 의료진 100여 명도 포함돼 있으며, 그중 50여 명이 사망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라이베리아 정부는 2개의 공항과 검문소를 제외한 국경을 폐쇄했고, 기니와 인접한 세

네갈 역시 국경을 폐쇄한 상태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시 약 1주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이 나고 심한 두통, 근육·관절통과 더불어 체온도 갑자기 올라간다. 특히 호흡기나 위장관에서 심한 출혈이 나타나며 보통 발병 후 8~9일째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

특히 치사율이 최고 90%에 달해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리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서아프리카 당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장례식 때 시신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군 성기능 장애 심각... 3명중 1명 발기부전 호소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젊은 미군 병사 10명 중 약 1명이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일간지 USA 투데이가 보도했다.

남가주대가 최근 성의학저널에 발표한 미군 성기능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미만 남자 현역 군인 367명 가운데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답한 비율은 8.4%에 달했다.

'발기부전에 걸린 게 확실하다'는 응답률은 또래 민간인의 약 3배 인 33%로 집계됐다.

연령대로 보면 30대의 발기부전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36~40세 발기부전 응답률은 40세 이상 민간인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연구팀은 군인의 성기능 장애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가주대의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현역 군인의 발기부전 비율은 0.58%, 40세 미만은 0.4%이다.

여야, 세월호특위 청문회 증인협상 공회전...또다시 결렬

김기춘·정호성·유정복 증인채택 놓고 여전히 이견...청문회 전체 일정 무산 위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30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채택 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청문회가 다음 달 4일에 시작됨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증인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6일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하게 됐다.

세월호 국정조사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증인협상에 나섰으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미흡한 구조 대응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과 정 부속실장이 반드시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제까지 청와대 부속실에 대해 청문회 증인을 채택한 적이 없고 김 실장 역시 이미 기관보고에 출석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당은 이날 이견이 없는 1,2,3일차 증인을 먼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를 일단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나머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는 만큼 원내 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넘기자는 입장이다.

조원진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 세 사람은 좀 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김 의원에게 입장을 전달했다"며 "지금이라도 1,2,3일차 증인을 합의하면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미 의원은 "조 의원이 1,2,3일차 증인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 지도부에게 공을 넘기자고 하지만 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실장과 정 부속실장, 유 장관에 대한 답을 오늘이라도 준다면 문제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위 여야간사인 조원진, 김현미 의원이 3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을 협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한편, 이날도 여야가 증인 협상에 점점을 찾지 못한 만큼 6일 청문회도 사실상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틀간 증인 합의 실패로 이미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는 다음 달 6일이라도 청문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날 증인 명단을 의결해야만 한다.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

률 5조4항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

만약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7일전에 전달받지 못하면 해당 증인이 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특위는 동행 명령권을 발부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기로 돼 있는 청문회는

이날 증인협상에 따라 전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정치적으로 합의만 한다면 7일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보고 4일부터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anghwi@news1.kr

세월호법 '조사위 구성 방안'에서 또 이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가 30일 특별법 처리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시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접근에 나선다. 당초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여야는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는 방안이 일정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특검을 포함시키는 문제부터 시작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방안까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수사는 특검이 담당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천권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절충한 끝에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가 가진다는 것에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특검을 추천할 인적 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현재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는 5:5:4:3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당은 진상조사위가 추천권을 가진 만큼 진상조사위의 구성 비율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전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대신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가 되도록 하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5:5:4:3 구성 비율에서 특검 추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여당은 가중 의결정족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유가족 추천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5:5:4:3 구성 비율에서 유가족 추천을 1명 줄여 5:5:4:2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단 야당은 여당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중 의결정족수가 반영된다면 모든 사안의 처리마다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최소한의 수사권도 확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유가족 추천 비율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 여야는 시나리오별 조문화를 거친 가운데 잠정 도출안과 관련해서는 각자 지도부와 협의한 뒤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다만 30일이 재보궐선거일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처리는 7월을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보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가 당장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유가족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 특별법이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anghwi@news1.kr

세월호특위 아위원, 국과수 현장조사

내일까지 국정원·대통령 경호실 등 현장조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30일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원을 방문해 유 전 회장에 대한 정밀검시과정을 점검하고 사인과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오후에는 국가정보원 상황실과 대테러상황실, 사이버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세월호 사고 초기 상황 접수과정과 보고체계, 전과과정, 선박 보안측정 실태도 점검한다.

31일에는 인천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방문해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접수 및 전과과정, 당시 상황실 근무자 등을 면담하고 상황판단 근거나 조치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도

찾아 세월호 상황접수과정과 조치사항, 대통령의 당일 7시간 동안 행적들을 파악해 청와대의 초기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sanghwi@news1.kr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30일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부검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원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려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있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크업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크업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8月 AMORE SUMMER EVENT



에어쿠션® 구매고객님께
스템셀 3종 트라이얼 키트를
증정합니다



\$90이상 구매시 or 바이오에센스 구매시
뿌리는 바디로션 해피바스 퍼퓸
바디미스트-목화향을 증정합니다

AMORE 보스톤점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8/1~8/31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러, 미장센

보스톤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Seoul Soup in Seoul
서울설령탕
SEOUL SOULONGTANG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SUMMER SPECIAL 냉면개시!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계수교장교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새벽기도회 : 오전 6시 (별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트: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Walnut Pastry
cocohodo

코코호도과자에서

프랜차이즈 원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 Review Application
- Interview Applicant
- Market Research Feasibility Study
- Approval Timeline
- Grand Opening
- Employee Training
- Construction
- Design Drawing

서울: 01-588-1303, FAX: 031-339-4080
LA: 213-448-7417, 714-870-4003
MA: 212-230-1002

작은 금액 사업 시작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ditional help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FREE Enrollment June 1-30

- JEI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JEI Problem Solving Math
-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제실일안식일에수제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방: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제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일 무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톱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두통,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60만원-60만 / 여: 45만원-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45만원-45만 / 여: 45만원-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HURA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 수남 | 이메일: huramceo@haram.kr
문의전화: 070-4141-4040 | 카카오톡: 010.3469.4040 (00: 24시간 응급 HURAM)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건강한 그롱코스키에 거는 현실적인 기대



지난 시즌 경기 중 무릎 부상으로 의료팀과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패트리엇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4 NFL 정규시즌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에 관해 가장 궁금한 점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타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가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그롱코스키는 최근 1-2년 동안 등, 팔, 무릎 부상으로 8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패스캐처이자 러블로커로서 월등한 기량을 자랑하는 그롱코스키는 NFL 최고 타이트 엔드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지난 2시즌 동안 그롱코스키는

부상으로 고전했으며 시즌 전체를 소화한 적이 없다.

4번째 수퍼볼을 노리고 있는 패트리엇스는 오는 9월 7일에 마이애미 돌핀스와 시즌 개막전을 갖는다. 패트리엇스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조건도 갖추어야 하지만 건강한 그롱코스키는 핵심 요소다. 특히 그롱코스키가 정규시즌 경기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경기 전체를 부상 없이 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패트리엇스의 올해 성적표가 달라질 것이다.

1년 전에 그롱코스키는 팔과 등 부

상에서 회복 중이었고, 그 당시에도 그롱코스키가 정규시즌 1주차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지가 주요 이슈였다. 작년엔 그롱코스키는 정규시즌이 시작할지 7주가 지나서야 경기장에 설 수 있었다. 그나마 14주차 덴버 브롱코스와 경기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고 시즌을 마감했다.

그롱코스키는 지난 주 패트리엇스의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할 때 자신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즌 개막과 동시에 출전하여

시즌 전경기를 소화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롱코스키가 아무리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오른쪽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무리다. 최근 비슷한 부상을 당했던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는 것이 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

애드리안 피터슨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터슨은 2012년 12월에 그롱코스키와 같은 무릎 전방십자인

대와 내측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피터슨은 2013년 모든 경기에 출전하여 MVP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고, 역대 NFL 기록에서 8야드가 부족한 2,097 러닝야드를 기록했다.

패트리엇스의 와이드 리시버였던 웨스 윌커는 2009년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윌커는 2010년에 복귀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지만 2009년만큼 눈부신 성적은 아니었다. 윌커는 2009년에 123캐치, 1,348야드를 기록한 반면, 2010년에는 86캐치, 848야드를 기록했다. 윌커는 2011년에는 122캐치, 1,569야드로 성적이 향상되었다.

올해 패트리엇스에 합류한 대럴 레비스도 2012년 시즌 초에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레비스는 2013년에 복귀해 정규시즌 16경기에 모두 출전했지만, 기록은 부상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그롱코스키가 이전 기량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약 85%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올해는 14경기 출전에 61캐치, 885야드, 11터치다운을 기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타이트 엔드 중에서는 NFL 최고 수준에 속한다. 부상에서 회복된 건강한 그롱코스키는 여전히 패트리엇스 공격의 핵심이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54

성급한 스윙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골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윙이 급한 사람의 경우 대부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성격이 매우 급한 골퍼들인 경우 결과는 2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는 골프는 자기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골프를 포기하는 경우다. 둘째는 자신의 의지나 혹은 어쩔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의하여 골프를 계속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급한 성격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골프라는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성격이 급한만큼 스윙이 급하게 되면 자연

적으로 무리한 스윙이 될 수밖에 없다. 급하게 무리한 스윙은 자연스럽게 뒷땅이나 탑핑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임팩트 타이밍이 조금 빠르면 뒷땅이 되는 것이고, 몸이 움직임이 조금 빠르면 탑핑으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적으로 보면 탑핑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지난주에 함께 라운딩을 했던 막내동생의 경우가 전형적인 급한 성격의 스윙을 가지고 있다. 덩치도 엄청나게 커서 한번 제대로 맞으면 정말 엄청나게 거리가 나온다. 흔히들 말하는 300야드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골프 스윙의 습관이 되어있질 못해서 골프가 금방 무너지는 타입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성급한 스윙을 보다 절제되고 정제된 스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의 성격이 여러가지로 다양한 만큼이나 해결 방안도 제각각 다를 수 있다. 그 중에서 수년간의 티칭을 통하여서 검증된 방법중에 가장 추천해줄 수 있는 것이 스윙의 피니시를 균형 잡힌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다. 어느정도 오

랫동안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6초를 권장한다. 대략 6초정도면 공이 멈춰서는 정도의 시간이 된다. 라운딩을 하는 동안 그렇게 오래 있으면 조금 심한 감이 없지 않기에 라운딩 하면서는 그 절반인 3초 정도 하도록 하고, 연습장에서 혼자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피니시를 6초동안 유지를 하고 나서 자세를 풀고 다음 샷을 준비하기 바란다. 그중에서 3초는 일부러 공이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 3초는 공이 떨어진 지점을 응시하면서 공이 멈춰설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왼발에 이동된 체중을 총 6초동안 그대로 왼발 위에 있는 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빠른 스윙이 맞는 사람의 경우는 제법 빠르게 급하게 스윙을 하더라도 균형

이 무너지지 않는다. 스윙을 하고 나서 피니시 동작을 6초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아무리 빠르게 급하게 스윙을 하더라도 괜찮다. 그것은 자신의 스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허용이 된다. 연습장에서 한번 시도해보기 바란다. 어느정도까지 해야 자신의 스윙을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정도인지, 어떤 경우는 자신의 스윙이 무너졌는지조차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스윙을 정성스레 지켜보고 조언해줄 수 있는 골프 친구를 동반하는 것이 혼자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GRAND OPEN

Fried Chicken 오리지날 치킨

Choice of :
Crispy, Mild Sweet Glaze or
Spicy Sweet Glaze
크리스피, 순한 양념, 매운 양념
Combination of half and half is available
with whole chicken only

Chicken Bites 순살 치킨

Choice of :
Crispy, Mild Sweet Glaze or
Spicy Sweet Glaze
크리스피, 순한 양념, 매운 양념
Combination of half and half is available
with large size only

Chicken Tender 치킨텐더

Slow marinated and hand battered
crispy style chicken tender

Crispy Chicken Bites 닭강정

Stir fried crispy chicken bites
with sweet and savory sauce



7days 11:00 AM - 11:00 PM
delivery / take out

전화 : 617-337-3500

주소 : 13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COMPUTER
SYSTEMS
INSTITUTE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1년 학비 \$3,600!!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송경빈
978-844-1508



Jerry Song
978-886-9695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55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972 sf.
Many updates, Close to schools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99,000
Newton, MA
2 beds, 2 baths, 1226 sf.
Perfect home for first time home buyer
OT Kim 617-620-8242



\$529,900
Lexington, MA
2 Beds, 1 Baths, 816 sf.
Amazing opportunity to own house in Lexington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콘도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70,000
Newton, MA
3 Beds, 1.5 Baths, 1788 sf.
대중교통, 하이웨이 진입 편리
Jason Jeon 617-642-5670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가정 상담 / 20여 개 언어 / 24시간 상담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Drop off Store



\$4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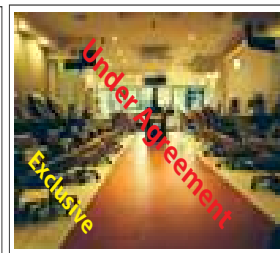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7월 21일 ~ 7월 27일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Touch My Body 씨스타
- 02 한여름밤의 꿈 San E
- 03 Darling 걸스데이
- 04 눈, 코, 입 태양
- 05 명수네 떡볶이 박명수
- 06 이제 그만 싸우자 허각
- 07 단발머리 AOA
- 08 JACKPOT 블랙비
- 09 오늘부터 1일 (Day 1) 케이윌
- 10 I'm In Love 에이리



1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3.5%



2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21.8%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19.4%

- 4 KBS1 KBS9시뉴스 17.2%
- 5 KBS2 개그콘서트 15.9%
- 6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5.0%
- 7 SBS 정글의법칙N인도양 12.7%
- 8 MBC 일일특별기획(엄마의정원) 12.6%
- 9 KBS1 러브인아시아 12.5%
- 10 KBS1 전국노래자랑 11.9%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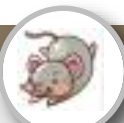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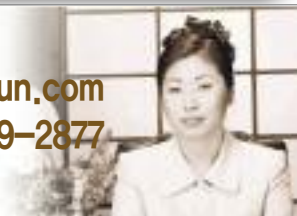
	8			4		3		
		3	8		5			6
			7					
7	4				9		3	
2		5		8		4		7
	9		4				6	5
					8			
6			2		3	1		
		1		6			2	

8월 3일 - 8월 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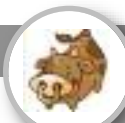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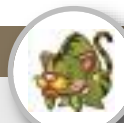
쥐띠 | 희망적인 일

● 운수: 사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위치도 향상되고 희망적인 일이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래와 금전 융통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때입니다. 로맨스 자수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5, 8일 길일, 3, 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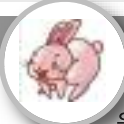
소띠 | 노력의 산물을 보게 되는

● 운수: 흐르는 물처럼 사는 것도 좋지만 흐르는 물속에서도 선택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 금전: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간 사람이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노력의 산물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행복도 자기가 만들고 불행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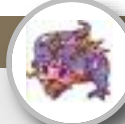
범띠 | 마음을 밝게 갖아야

● 운수: 지나친 신경은 정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을 밝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금전왕래가 많은 시기이니 돈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상대에게 집중하다보면 상대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토끼띠 | 마음을 잘 다스려야

● 운수: 모든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투기는 한번쯤은 좋으나 계속하면 본전이 생각이 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주입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현실에 만족하기 힘든 상태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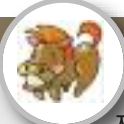
용띠 | 이 기회에 표현하도록

● 운수: 진실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실업자는 취직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정상적인 수입보다는 횡재에 가까운 변칙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주입니다. ● 애정: 현실에서 오는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대면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을 접어두지 말고 이 기회에 표현하도록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뱀띠 | 미소를 지어야

● 운수: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내부적인 문제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전: 시간은 항상 흐르는 것이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부지런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불평불만의 소리를 낮추도록 합니다. 미소를 지어야 애정운이 호전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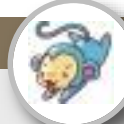
말띠 | 결과적으로는 다행한

● 운수: 본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한 일입니다. ● 금전: 금전 운은 양호한 편으로 지금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애정: 가장 바람직하고 보기에 좋은 것이 나이에 맞게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남에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7일 길일, 6, 9일 주의.



양띠 | 마음의 문을 열고

● 운수: 이것저것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추진하세요. ● 금전: 금전적인 목표가 무난히 이루어져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 애정: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도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 8일 길일, 7, 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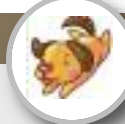
원숭이띠 | 자신감에 넘쳐서

● 운수: 자신감에 넘쳐서 모든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도하는 사업상의 확장은 후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 금전: 쉬운 돈벌이에 혹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다른 일에 쉽게 응하지 않도록 하세요. ● 애정: 어떤 오해에 빠지거나 자신의 판단과는 다른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9일 길일, 4, 8일 주의.



닭띠 |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 운수: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순조로운 주입니다. ● 금전: 한쪽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익을 가져오니 기쁨이 말할 수 없겠습니다. ● 애정: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태껏 알지 못했던 매력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7일 길일, 3, 9일 주의.



개띠 | 따뜻한 대화와 애정이 필요한

● 운수: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밝게 가져야 일도 풀려나갑니다. ● 금전: 다른 사람에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추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성간에 따뜻한 대화와 애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용기 잃은 이성에게 사랑은 약이 되어 줍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5일 길일, 4, 9일 주의.



돼지띠 | 멀리 내다보아야

● 운수: 지금은 하나만 보고 다른 것은 안보고 있군요. 눈앞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 금전: 너무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융통성을 보여야 성사될 것입니다. ● 애정: 어려운 때일수록 적극적인 애정표현이 부부금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9일 길일, 5, 8일 주의.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베냐민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의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사온교회	413-549-9200
우시 교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클로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텀링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768-7675
프론티어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47-960-0171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17-879-9979
STEVEN S. KIM 변호사	617-624-0292
Joy Lee 변호사	617-367-4949
Young Lee Danesh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각(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안힐리안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파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이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781-894-1127
아이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현비철임플란트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티브(남술)김/뉴욕생명	617-538-7851
이민항 보험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5
올스톤에 있는 식당
주방보조 아주머니와 케슈어 구함.
T. 617-319-2833

8/22
세탁소 카운터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우스터 지역, 파트타임
T. 617-512-275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7/25
534 Commonwealth Ave-럭셔리 2베드 2베스 \$3000 8/1일 입주 또는 \$3250 9/1일 입주
T. 781-733-9294

7/25
636 Beacon Street - 럭셔리 2베드 1베스 \$3055 8/1일 입주
T. 781-733-9294

6/13
N [매 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
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매매
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
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
치함.
T. 901-267-2991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8/22
Restaurant for Sale
Arlington Center on Massachusetts Ave.
T. 617-480-7090

4/25
N [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2
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
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랜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4/25
N [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
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랜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
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6/13
N [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6/13
N [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
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
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
m

6/13
N [구인]
돌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
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
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
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
락 드리겠습니다.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종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명량' 평점 고공행진, 평균 8점대로 '장기 흥행' 예고

(서울=뉴스1스포츠) 안하나 기자 = 영화 '명량'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3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30일 '명량'은 68만2882명을 동원, 누적 관객수 70만5555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명량'은 '군도:민란의 시대'의 오프닝 스코어 55만1848명을 꺾고, 역대 오프닝 관객 동원 신기록을 세웠다.

이를 입증하듯 '명량'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평점 8.3점으로 별 4개를, 네이버에서는 8.93점으로 별 4개 반을

기록 중이다.

'명량'의 반응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량 평점 대박이다", "명량 평점 완전 높다", "명량 평점 보니 영화가 더 궁금하다", "명량 빨리 보러 영화관 가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명량대첩을 스크린 위에 옮긴 작품이다. 영화 '최종병기 활'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고 최민식, 류승룡 두 배우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ahn1113@news1.kr

홍진영, 팬들과 깜짝 생일파티 개최 '우리 같이 놀아요'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가수 홍진영이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 특별한 파티를 개최한다. 홍진영은 오는 8월 9일 서울 상암동에서 '우리 같이 놀아요' 라는 테마

로 생일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한결 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응원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일을 기념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생일파티에는 허경환이 MC로 나서며 포맨 신용재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아울러 평소 예뻐 보지 못했던 홍진영의 깜짝 무대를 비롯해 참여하는 모든 팬들에게 제 공할 꾸민 선물들이 마련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추첨을 통해 참여인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량', 개봉 이틀째 100만 관객 돌파 역대 최단 속도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영화 '명량'이 개봉 이틀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명량'은 개봉 이틀째인 31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00만 1962명을 돌파했다. 이는 영화 '설국열차'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타이 기록이며, '설국열차'보다 시간상 빠른 기록이다.

특히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현충일 휴일 특수를 맞아 개봉 이틀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면 '명량'은 평일 이틀간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명량'은 '아바타' '괴물' '도둑들(이상 3일)', '광해, 왕이 된 남자' '변호인'(이상 4일) 등 역대 천만 영화들보다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 앞으로 '명량'이 어떤 흥행 기록을 써 내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도:민란의 시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 경쟁한 경쟁작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와 64%의 예매 점유율을 기록한 '명량'은 개봉 당일 6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첫 주말에는 얼마나 많은 관객을 동원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명량대첩'을 그린 작품이다.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전쟁의 불거리와 스펙터클한 액션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30 August 1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입맛을 사로잡는 양고기 전문 아프가니스탄 레스토랑

아리아나(Ariana)

업소탐방 248

129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617-208-8072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평소 양고기 요리에 익숙하지 않던 이들이라도 '아리아나'의 요리를 한번 맛보면 양고기 매력에 흠뻑 빠질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전통이 스며든 다양한 요리와 에피타이저, 디저트 등은 우리의 혀를 기분 좋게 자극하기 충분하다.

양고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바로 '비린내가 난다'이다. 아리아나를 운영하는 나지브 로스타미(Najeeb Rostami) 사장은 "양고기는 어설픈 요리하면 고유의 맛있는 맛을 낼 수 없다"며 "우리는 양고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풍미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둔다"라고 한다. 보스톤에 아프가니스탄 전통 음식점은 딱 두 군데다. 캠브리지에 위치한 오래된 식당 하나와 아리아나. 보스톤에서 흔히 맛볼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전통 음식인만큼 로스타미 사장이 요리에 쏟아 붓는 정성과 애정은 대단하다.

아리아나는 매주 한 두번씩 로컬 양고기를 들여온다. 특정 요리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입해 직접 손질하기도 한다. 모든 소스는 양파, 토마토 등 야채를 불에 오래 끓여 우려 나온 즙으로 만든다.

에피타이저로 단호박에 아프가니스탄식 플레인 요거트와 그라운드 비프 소스가 곁들여진 'Kaddo'를 주문했다.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니 예상 밖의 감칠맛. 눈깜짝할 새에 접시를 비웠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한 고소한 플랫폼 브레드인 아프가니스탄 스타일 '난'과 세 가지 소스도 함께 나왔다. 플레인 요거트 맛의 하얀 소스, 견과류, 실란초, 오이, 민트 등을 넣어 만든 과카몰리 맛의 녹색 소스, 매콤하게 맛있는 핫소스는 취향에 따라 '난'이나 고기와 곁들여 먹을 수 있다. 세 가지 소스를 다 얹어먹어도 환상의 조합이다.

드디어 대망의 양고기. 아시안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Chopan'은 양갈비와 구운 '난', 가지볶음, 아프가니스탄 식 라이스가 함께 나온다. 누가 양고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는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사랑받는 음식엔 단연 이유가 있다.

로스타미 씨는 전통 아프가니스탄의 요리법과 가문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요리법을 더해 아리아나만의 고급 양고기 요리를 탄생시켰다. 문을 연 지 4년밖에 안 돼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번 방문한 손님들은 단골이 된다. 아프가니스탄

인들이 "미국에서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행복해하고, 미국인과 아시안 손님들이 "양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칭찬할 때



로스타미 사장은 보람을 느낀다.

양고기가 단연 메인 메뉴지만 취향을 존중해 소고기, 닭, 송어 요리도 제공하며 베지테리안 메뉴도 있다. 패스트리나 과일을 얹은 요거트 등 아프가니스탄 스타일 디저트도 있으니 반드시 맛볼 것.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10시까지이며 단체 예약도 받는다.

epark@bostonkorea.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걸스데이 민아, 손흥민과 열애 사실 공식 인정... "두번 만났어요"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걸그룹 걸스데이 민아(21)가 축구선수 손흥민(22·레버쿠젠)과의 열애설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9일 "걸스데이 민아로부터 확인 결과 손흥민 선수와 좋은 감정으로 두 번 만났다고 들었다"며 "SNS를 통해 서로 팬의로서의 격려와 우정을 쌓아 오다가 손흥민 선수가 독일 소속팀 복귀 전 좋은 감정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걸스데이 민아는 두 번 만나고 이제 막 좋은 감정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언론



에 공식화되는 것이 곧 리그가 시작되는 손흥민 선수나 현재 활동 중인 걸스데이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소속사도 당황해 현 상황 입장정리 중 오해를 빚은 부분에 대해 팬들과 언론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이며 공식입장을 마무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아와 손흥민은 SNS를 시작으로 최근 만남을 갖기 시작했으며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청동과 강남구청역 근처에서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을 취재했다고 전했다.

보도된 사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늦은 밤 모자를 쓰고 손흥민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길을 걸거나 손흥민이 산 꽃다발을 민아가 들고 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한편, 민아는 2010년 걸스데이 멤버로 데뷔해 현재 '달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손흥민은 2010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공식 발탁됐다. 당시 만 18세로 4번째 최연소 국가 대표 발탁 선수로 기록됐다. 현재 독일 레버쿠젠에 소속돼 있다.

걸스데이 민아-손흥민 열애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걸스데이 민아, 대박", "걸스데이 민아, 손흥민이랑 둘이 찍힌 사진 보니까 달달하더라", "걸스데이 민아, 헐 요즘 아이돌들은 연애도 자유로운가 보네", "걸스데이 민아, 손흥민이랑 의외의 조합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촌 물총축제 수지 참여

(서울=뉴스1)권수아 기자 =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신촌 물총축제를 즐겼다.

수지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로에서 열린 신촌 물총 축제 스프라이트 샤워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날 수지는 '제2회 신촌 물총축제 스프라이트 샤워' 오프닝 세리머니로 카운트다운을 외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수지는 화려한 무늬에 민소매와 핫팬츠를 입고 뛰어난 미모와 육감적인 몸매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스프라이트는 수지의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다양한 콘셉트의 샤워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물총 축제의 현장 참가자들에게 스프라이트를 제공했다.

수지 신촌 물총축제에 누리꾼들은 "수지 신촌 물총축제 대박", "신촌 물총축제 오늘도 한다던데", "신촌 물총축제 재밌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wonsua@news1.com



현아, '빨개요' 재킷 촬영 비하인드 공개 '팔색조 매력'

(서울=뉴스1스포츠)윤한슬 기자 = 가수 현아가 '빨개요'의 재킷 촬영 메이킹 영상을 통해 섹시함을 과시했다.

현아는 31일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 3집 음반 '에이토크(A Talk)'의 재킷 촬영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현아는 이번 콘셉트 전반에 아이디어를

내는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재킷 촬영 현장을 소개하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전했다.

화이트란 제리의 상을 입은 현아는 보정작업을 전혀 거

치지 않은 영상에서도 빼어난 몸매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또 여기에 오묘한 눈빛까지 더해져 남다른 포스를 발산했다.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시작부터 마감까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 씨의 뿌리 (5)〉

문무왕 비문(3)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흥덕 왕릉묘

신라 김씨의 뿌리가 흥노 우현왕 (1)휴저왕의 아들 투후 김 일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을 남긴 문무왕 비문은 조선 조 때 경주 부윤 홍양호(1724-1820)가 1796년에 처음 발견했지만 탁본만 뜬 다음에 곧 소실되었다.

1817년에 금석문(金石文)의 대가, 추사 김정희가 재발견하여 1817년과 1824년 두 차례에 걸쳐 탁본을 뜨고, 그의 저서 해동비고(海東碑故)에 비문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비문은 문무왕(AD661-692)사후 6년 후(AD687)에 31대 신문왕(AD 681-AD 692)이 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사천왕사지에 보존되어 왔다고 기록하였다.

추사는 탁본을 청나라 금석문 학자 유연정(劉燕庭)에게 전하여 그의 저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 묘비의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 그 이후에 묘비가 다시 소실되었다가 1961년에 묘비 하단 부분이 재발견되었고 2009년에 상당 부분이 재발견되어 현재 경주 박물관에 묘비 전체가 보관되어 있다.

비문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마모가 심했지만 홍양호 경주 부윤이 남긴 탁본의 도움으로 신라 김씨 뿌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령스런 근원은 멀리서부터 내려와 화관지후(火官之)后的 창성한 터전을 이었고 높이 세워져 바야흐로 융성하니 이로부터 가지(枝)의 이어짐이 비로서 생겨 영이한 투후(投侯) (2)제천지윤(祭天之胤)이 7대를 전하였다. 15대조 성



김인문 묘

한왕(星漢王)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 영이 선악(仙岳)에서 나와 00을 개창하여 옥란을 대하니 비로서 조상의 복이 상서로운 수풀처럼 많아 석류(石紐)를 보고 금여에 앉 아…” 로 계속되고 있다.

한국 금석문(金石文)의 권위자 김재섭 씨는 중국의 금문 학자 낙빈기의 금문신고(金文新攷)를 기초로 해서 이 글을 풀이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화관지후는 BC 2300년의 순임금을 의미한다. 비문의 내용은 투후(投侯: 김일제)의 7대 손이 성한왕(星漢王)인데, 성한왕은 문무왕의 15대 조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중국 역사상 투후 벼슬을 지낸 사람은 김일제와 그의 자손들 뿐이다.

비문은 분명하게 문무왕과 신라 김 씨의 조상이 투후 김일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비문에 나오는 문무왕의 15대 선조인 성한왕은 누구인가? 세보를 따져 올라가면 김알지가 16대 조상이 되고 그 아들 세한(勢漢)이 15대조가 된다. 추사 김정희는 그의 저서에서 김알지가 성한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진흥왕 순수비 (AD 586)를 필두로 고려 때



흥평현 도상촌에 있는 김일제 묘비

까지 500여년 동안에 세워진 수많은 비문에 성한왕을 신라 태조(太祖)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신라를 건국한 창업지주는 박혁거세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신라 사회는 성한왕이 신라 태조라는 사실이 적어도 500년동안 신라 조야에 공인된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AD 695년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 묘비에는 태조 한왕(太祖 漢王)으로 기록되었고 AD 872년 흥덕왕릉 비문에는 태조 성한으로, AD 937년 황해도 해주에 있는 진철대사 비문에는 성한 지묘로, 신라가 망한 후 4년, AD 939년에 세운 원주흥법 사지 진공대사 탑비에는 기선항자 성한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결같이 한왕(漢王)으로 표기하는 의도는 성한왕이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유래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30대 문무왕보다 100년 전인 24대 진흥왕 29년 (AD 568)에 건립된 마운령과 황초령 순수비에는 태조(太祖)의 기업을 계승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신라 사회는 성한왕을 창업지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성한왕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조상 투후 김일제를 인정한

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성한왕은 물론이고 김일제의 이름조차 언급된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비문과 역사서 기록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석문(金石文)이란 쇠나 돌 또는 목간에 글씨나 그림을 새긴 것을 일컫는다. 이 글의 내용을 풀이하고 서체와 서풍을 연구하는 학술적 탐구를 금석학이라고 한다. 추사 김정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석학자였다.

역사 사실을 규명하는데는 금석문의 신빙도가 역사서를 능가하기 마련이다. 문무왕 비문에서 보듯이 문무왕 사망 후 꼭 6년 후에 당시 사회 사정에 정통했던 사람이 만든 것이 문무왕 비문이다. 삼국 사기, 삼국 유사는 문무왕이 사망하고 600년이나 경과된 1140년경에 편찬된 책이다. 6년과 600년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문무왕 비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학자 문정창(文定昌)씨는 그의 저서 ‘가야사’ 에서 동방의 김씨는 거의 모두 (3)소호금천의 후손이요 또 김일제(金日磾)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라 김씨는 김일제로부터 투후 벼슬을 5번째로 계승한 김성의 후손이고 김수로왕의 가락 김씨는 김일제의 동생 김륜(金倫)의 5대손 김탕이라고 주장하였다.

(1) 휴저왕(休屠王): 흥노 변왕으로 투후 김일제의 부왕이다. 후도왕의 도(屠)자는 죽일 도자로 이름 그 자체로 죽일 놈이라는 뜻이다. 흥노족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중국인들이 힘삼갯게 명명해 놓았다.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휴저왕으로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필자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2)제천지윤: 흥노는 금으로 사람 상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김일제가 한무제로부터 김씨를 사성받게 되었다.

3)소호금천: 산해경(山海經)에 이르기를 동해 밖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소호국이다. 소호 금천은 동이쪽으로 황제 현원의 아들이고 김씨의 시조다.



김인문 묘비. 거북 받침대. 비문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가슴이 뜨겁다.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
8월 15일 광복절 대개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최종병기 활〉 김한민 감독

명검광

삼도 수군총제사

이순신 / 최민식

8월15일 대개봉

Showcase Revere: 565 Squire Rd, Revere, MA 02151 (781) 284-5701

영화 및 극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J-Entertainment.com 그리고 페이스북 〈Asian movies N more〉을 참고 하세요



한담객설閑談客說: 일정그릇의 법칙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법정스님의 글이다. 산속 오두막에 기거하실 적이라. 부실하게 지은 집인지라 장마철이면 아궁이에 물이 끈다고 했다. 걱정되어 자주 퍼내야만 했단다. 하지만 퍼낼수록 물이 다시 끈다고 했는데, 물이 바닥 갈라진 틈에서 올라오는 거다. 낙심한 스님이 오래지 않아 물리학 법칙을 찾아 냈다.

‘(아궁이에) 물이 괴는 족족 물을 퍼내면 도리어 물결이 뜨여 끊임없이 물이 끈다. 그런데 물이 괴면 그 물량에 따라 압력, 즉 수압이 생기기 때문에 정량이 넘으면 그 이상 더 차오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뒤늦게 터득했다.’ (법정스님 글 중에서)

이건 물리학이면서도 인문학이다. ‘샘물은 퍼내면 다시 채워진다.’ 계다가 채워지는

물은 더욱 맑은 물일텐데, 아궁이가 컸다면 채워지는 물은 더 많아질건 틀림없다. 일정량 유지의 법칙이라 명명命名하려한다.

어느 중신重臣이 술을 너무 마셔댔다. 임금 이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그를 걱정한 임금이 술잔을 하사했다. ‘하루에 이 잔으로 한잔씩만 마셔라’ 는 당부도 잊지는 않았다. 술잔은 소주잔만했게 게고, 늦으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다. 한잔 정도라면 신하가 과히 취하지 않을 거라 안심하면서 말이다. 헌데, 며칠 후 다시 그 정승을 만난 임금은 놀랐고, 격노했다. 신하는 다시 만취되어 조정에 나왔다. 허걱, 임금이 물었다. ‘그 잔으로 한잔만 마셨더니’ 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대취했는가?’

한잔 술에 대취한 신하는 송강 정철인데, 그는 술잔 안벽을 두드려 늘렸다. 작은 잔을 냉면사발만하게 늘려 만든 거다. 그러니 한잔은 한잔인데, 큰 대접으로 한잔이 된 거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도 아닌데, 냉면대접으로 술을 마신 게다. 타는 목마름은 기발함을 일켰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던 거다. 일정 그릇의 법칙이라 명명命名한다. 덕택에 김육 선생 시조가 떠올랐다. 송강의 장진주사에 못지 않다. 절창이다.

자네 집에 술이거든 부디 날 부르시게
내 집에 꽃 피거든 나도 자네 청하고저
백 년 덧 시름 잊을 일을 의논코저 합일세
(김육, 자네집에 술이거든)
옛 시조에는 마지막 절에 자주, ‘아해’ 에

게 심부름 시킨다. ‘아해야, 짚방석 내지말라.’ 고 아이를 채근하는 거다. 후렴구도 아니고, 잣수를 맞추기 위해 그런가. ‘아해’ 가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 호號라고 했다. 별명이라 하기엔 평범하지 않다. 유모라는 사람말이다. 그 사람 제 정량이 넘쳤는데, 그릇이 아해답지 않게 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니면 너무 넓히려다가 그릇이 깨졌던가. 울여름은 백년시름을 한꺼번에 맞는듯 싶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요한 2:6~8)

신영의 세상 스케치

458회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란 여러 자식의 손가락을 깨물어 분명 더 아픈 손가락을 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녀의 성격이나 자질 그리고 꿈과 이상을 섬세하게 알아차릴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닐까 싶다. 좋은 스승이란 각 개인의 개성을 알고 제자들의 성품과 성질 그 외의 환경적인 요인까지 파악해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제자의 눈높이에 조금씩 다가가 맞춰주는 일일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에 대한 얘기나 글은 언제나처럼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해 사실과 생각과 그에 따른 느낌과 표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 멀리 그리고 크게 놓고 보면 어디서부터 잡을까 그 폭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찬찬히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어려서 가정 시간에 처음 접했던 주거 공간에 대한 평면도를 마주했던 것처럼 주방과 거실의 방향과 위치 그리고 현관문과 창문의 트임 등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가끔은 이처럼 자신만의 평면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생활하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가구를

조금씩 옮겨 놓아보듯이 무엇인가 불편했던 것이 있다면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일 말이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는 또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한 대상으로는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욱 깊이 서로를 알 것이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서로의 접촉이 제일 많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다가가 닿고 부딪치고 던져진 것들이 많아 상처도 더 많고 아픔과 고통도 더 많은 관계에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서로 처음 만날 때의 그 반짝이던 눈망울과 터질듯한 그 뜨거운 가슴의 열정은 잠시 접어두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삶에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사랑이 뭘까 생각하며 객관적인 눈이 뜨이는 때부터의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일 때는 더욱이 그렇다. 부부의 관계는 수평의 평등 관계이며 절대 수직의 관계인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각자 일일이 열거하거나 표현하지 않지만 나름 자신만의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부분은 다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처럼 남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혼자만이 간직하고 싶은 비밀 같은 것이 아니면 특 건드리면 터져 솟아오를 것 같은 아킬레스건도 한둘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다.

부부라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의라고 생각한다. 서로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서로에게 의지할 힘이 생기고 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부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곁에 있든 아니면 멀리 있든 간에 늘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뿌리로 그 바람을 잘 견딜 수 있는 부부간의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아이들이 어려서 가정에서도 학습이 물론 이루어지지만,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 혼자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성을 배우는 때가 유아원과 유치원이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습이 시작되는데 그 학습에는 기본적인 기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초

등학교의 선생님들의 철저한 교육방법이기도 하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다. 그 배움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사랑과 그 외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지혜를 얻는 것이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정말 공감하는 구절이며 그렇겠다는 생각이다. 그 어떤 관계에 놓여있든 간에 서로에게 배려의 마음의 시작이 사랑이고 그리고 가끔은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은 그 사랑을 위해 늘 배려의 마음과 기다림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랑과 사람을 지켜주는 등불로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 우리가 어려서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히며 어렵듯이 관계에 대한 사회성을 배웠듯이 우리네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관계임을 깨달으며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제 4 탄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디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행사기간 2014년 7월 부터~

상담및문의 뉴스코리아 972-247-9111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디끄 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

에디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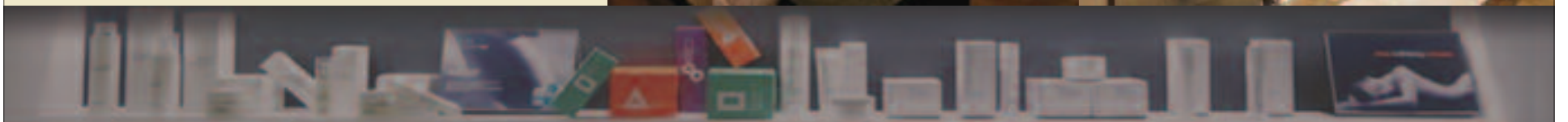
럭셔리 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소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론 버 (Aaron Bur)는 왜? (3)

(지난 주에 이어) 19세기 부패 정치, 혹은 정계의 검은 커넥션의 아이콘으로 20세기 개혁가의 눈으로 보자면 '적폐'의 총 집합소 같았던 태머니 홀 (Tammany Hall). 태머니홀은 1780년대 말, 퇴역 군인들이 주축이 되어 애국과 친교, 자선 등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지만, 19세기 전반에 걸쳐 뉴욕시, 더 나아가서 뉴욕주 전체, 때로는 전국 단위의 정치에 있어서 한때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했던 민주당의 파벌 (political machine) 조직으로 존재했다.

어쨌거나 태머니 홀의 초대 수장이 바로 아론 버였다. 그리고 태머니홀은 현재 권력의 핵심인 연방파의 귀족주의적인 성향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공화주의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언급했다시피 뉴욕은 당시 연방파의 아성이었고, 그 연방파의 수장은 바로 알렉산더 해밀튼이었다. 민주공화파의 이념적 토대를 지닌 아론 버와 연방파의 수장 해밀튼은 뉴욕이라는 공통 기반의 지분을 앞에 두고 있는 이상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론 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현직 대통령 아담스와 정치 거물 제퍼슨 간의 두번째 격돌이 될 줄 알았던 1800년 선거에서 아론 버는 아담스를 일찌감치 따돌리고 제퍼슨과 동점을 얻어냈다.

같은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립한 두 거물 아론 버와 알렉산더 해밀튼이 불화했던 것이 이해불가능한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인 그 1800년 선거의 결과는 곰곰히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연방파를 계승한 연방주의당 (Federalist Party)에서 한 명의 후보인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를 내세웠고, 민주 공화당 출신으로는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으며, 연방주의당은 아직까지는 집권당으로써 더 많은 의석까지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아담스가 당선되고 득표수가 같았던 제퍼슨과 버 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택하게 된다면, 적어도 아담스가 차점자로 부통령이 된다면 어차피 아니었을까?

물론 흑색 선전이 난무했던 이 1800년 선거에서 제퍼슨 진영으로부터 '위선자, 범죄자, 독재자, 무능력자, 친영파'와 같은 비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퍼슨 역시 흑색선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해밀튼을 비롯한 뉴욕 중심의 연방주의 세력이 아담스 대통령을 돕는 데 미온적이었던 데 있지 않았을까?

1대 워싱턴 대통령의 경우 해밀튼에 대한 신임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대외정책과 재무 문제에 있어 해밀튼은 워싱턴 대통령의 브레인이었다. 그러나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치러진 1796년 선거에서 해밀튼은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담스 대신 핑크니를 지지했

더했다. 한편 대외 정책이 있어 급진적 연방주의자였던 해밀튼은 온건한 연방주의자였던 아담스와 아담스 대통령의 재임기간 내내 갈등했다. 아담스가 대통령으로서의 인기를 잃어가는 동안, 해밀튼은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 기간이었다. 대신 제퍼슨이 한 때는 친구였던 아담스와 싸늘히 결별한 대신 오랜 정적이었던 해밀튼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여곡절 끝에, 해밀튼은 1800년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라이벌 구도였던 제퍼슨을 지원했다. 말하자면 가장 급진적 연방주의 그룹이 민주 공화파의 리더를 지원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적의 적은 필요에 따라 동지가 되는 이치라거나 할까.

"우리는 모두 민주공화파이며, 우리는 모두 연방파입니다" 제퍼슨이 취임 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두 정파 혹은 정당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탕평의 언사같지만, 사실 토마스 제퍼슨은 집권 초기 오랜 지원 세력인 버지니아 중심의 민주공화파와, 그의 대권 승리에 사실상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뉴잉글랜드의 급진적인 연방파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었다. 결국 제퍼슨은 뉴잉글랜드를 기반으로 한 변호사, 상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연방주의자들이 제퍼슨에 반기를 들기로 하고, 에섹스 준토 (Essex Junto)라고 하는 결사를 구성했다. (이들이 나중에 1812년 전쟁에서 공공연히 영국 편을 드는 이들이다) 그리고

연방파가 장악한 뉴잉글랜드, 펜실베이니아, 뉴욕 등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북부연방의 안을 제안했다.

에섹스 준토는 북부연방의 분리독립을 뉴욕주의 주지사 선거와 결부시키고자했다. 뉴욕 주지사 선거를 이기고 뉴욕을 장악한 후 뉴잉글랜드 지역을 연방으로부터 탈퇴시키는 이 안에, 그러나 해밀튼이 반대했다. 가장 강력한 연방주의자 해밀튼이 연방을 깰 수는 없었던 것.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해밀튼이 거부한 북부연방의 안은 다소 억울하게 부통령직에 머물게 된 아론 버의 몫이 된 것. 그러나 아론 버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했다. 물론, 해밀튼의 거센 비판이 있었다. "반란을 도모하는 아론 버." 해밀튼 때문에 두 번의 중요한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고 생각한 아론 버의 해밀튼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 아론 버가 해밀튼에게 결투를 신청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결과적으로 해밀튼은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세상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뉴저지에서는 결투가 불법이 아니었기때문에 아론 버가 해밀튼의 죽음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제퍼슨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아론 버가 해밀튼과의 결투 이후 치러야했던 댓가는 혹독했다.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3 무예도보통지와 정조대왕(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지는 궁시弓矢 위주로 문신들도 취미의 생활을 넘어 수련하였으며 무신들은 다른 병기들도 사용하였지만 궁시가 언제나 우위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기간에 실전에서는 '단병短兵'이라고 불리는 검劍과 창槍 그리고 권拳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의 훈련용으로 무예제보를 간행하였고, 이에 1759년에 죽장창竹長槍 등의 12기를 더하여 무예신보를 간행하였다. 무예도보통지는 병사들이 빠르게 기예를 익혀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도보圖譜 중심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치욕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조의 의지가 담긴 무예서로서 국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권수에는 임금 정조가 직접 쓴 '서문', '범례', '병기총서兵器總敍', '척모사실戚茅事實', '기예질의技藝質疑', '인용서목' 등의 순서로 실려 있다. 병기총서는 조선왕조의 건국 이래 역대 왕들의 군사정책 및 훈련에 대한 기록과 병서兵書, 진법陣法 등의 편찬과 무과의 과거시험 등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태조대부터 정조대까지의 조선의 전투기술사와 병기사兵技史 등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척모사실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는 데 기본이 된 '기효신서

'의 저자 척계광과 '무비지'의 저자인 모원의의 소전小傳을 실고 있다. 기예질의에는 한교가 병기에 관해서 명나라의 장수 허유격에게 질의 문답한 내용과 한교의 소전이 기록되어 있다. 인용서목에는 148종의 무에서, 병서, 역사서, 철학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의 무예가 다른 나라의 무예를 취사흡수하여 잘 발전시킨 변천과정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임금 정조가 직접 지은 무예도보통지의 '서문'을 살펴 본다. 무예도보통지 원문을 바탕으로 '무예도보통지 실연완역' (임동규, 학민사)을 참고하여 번역 위주가 아니고 이해 위주로 옮겨 본다.

61) 서문에서 정조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사조련제도는 삼군三軍(국방을 담당하는 군사들은) 교외에서 조련하고 위사衛士(왕을 호위하고 궁성을 지키는 군사)는 금원禁苑에서 조련하게 되어 있다. 금원에서의 위사들의 훈련은 세조 때부터 많이 하였지만 단지 활쏘기 위주의 훈련이었다. 고로 창법이나 검법과 같은 기예는 훈련하였다는 말을 들 어보지 못하였다. 선조 임금께서 왜구들의 침략을 물리치신 후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구하시어 강講을 들으셨다. 그리고 훈국랑 한 교韓嶠를 명나라의 진중으로 보내시어 명나라에서 온 장수들에게 여러방면의 무예에 결

쳐 두루 질문하고, 곤방棍棒등의 육기六技를 연구하고 해석하여 도보圖譜(2)를 만들게 하시었다. 그리고 효종 임금께서는 선대 왕들의 업적을 잘 계승하여 내열을 자주 시행하셨는데, 무예에 있어서 몇몇가지 기법들이 매우 분명히 밝혀져 치고 찌르는 기법이 이때에 이르러 점점 더 광범위하게 수련되었다. 그러나 효종 임금 대의 수련도 훈련의 양이 늘고 질은 향상되었지만 한교가 저술한 무예제보의 육기에 그쳤지 그 종류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영조 기사년(1749년)에 사도세자께서 제반 국정을 담당하실 때 죽장창 등 열 두가지 기예를 더 보태어 도보(3)를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이전의 육기와 함께 체계적으로 연관시켜 수련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현릉원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십팔기十八技'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정조가 직접 지은 무예도보통지의 서문, 다음 호에서도 계속 살펴 보기로 한다.

61) 예로, 光廟祖는 세조의 시효이기에 여기서는 세조로, 그리고 선묘先廟 역시 여기서는 영조 임금을 뜻함으로 그냥 영조로, 또한 소묘小廟는 여기서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임으로 그냥 세도세자로 번역한다.

62) 도圖는 그림으로 자세를 나타내며, 보譜는 설명으로 동작을 뜻한다.

63) 무예신보를 말한다.

휴람으로 떠나는 고국방문

一石二鳥

마음 속 고이 간직해 온 고국 방문의 꿈, 최상급 의료서비스도,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도 휴람을 통해서라면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HURAM 여행처럼 떠나는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이란?
'HOSPITAL, HEALING+HURAM(유람-돌아다니며 구경하다)'의 합성어로 한국의 의료와 관광을 연결해주는 의료관광 전문 회사입니다.



*** 한 차원 높은 의료관광 서비스 휴람**
해외동포들이 한국 방문 시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병원들을 선별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 질 높은 의료 기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



- 1** 처음부터 끝까지,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상담원 전화 - 병원선별 - 예약 & 수속 - 치료 - 종료
- 2** 휴람만의 고객 특별 혜택!
고품격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휴람'은 의료도 관광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람을 통해 의료를 시행하시면 지불한 비용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환원해 드립니다.

HURAM

휴람이 추천하는 명품병원에서 **경험해 보세요!** 마법같이 예뻐지고, 당당하게 젊어집니다.

성형외과



- 눈밑지방제거
- 쌍꺼풀
- 코성형
- 가슴성형
- 페이스리프팅
- 안면윤곽수술
- 지방흡입술
- 기타 성형...



휴람의 네트워크병원은 서울 강남과 압구정에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medical@huramkorea.com

문의: 617-583-2339 | 한국문의: 82.70.4141.4040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침묵속에 자라나는 가정폭력 V’ (Domestic Violence)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필자는 그동안 네 차례 칼럼을 통해, ‘가정폭력’ 중,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의 원인과 방지법을 피력하였다(보스톤 코리아 웹사이트에 필자를 검색하면, 지난칼럼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책임한 성문화가 주는 무관심과 냉담의 ‘방임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이야기한다.

서강대의 정형준 학생회장은 ‘남성 중심의 성문화와 비밀비재한 성폭력을 비판하며...’ 라는 주제로 현 한국 대학 문화의 ‘왜곡된 성문화’를 꼬집는 글을 썼다. 그는 “대학내에서도 성희롱과 성폭력이 비밀비재하고, 그것이 마치 피해자인 여성의 잘못된양, 슬쩍 넘어가려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하다”라고 말했다. 정군은 대학내에 계속되는 성폭력과 성희롱의 원인을 이렇게 말한다.

‘현 대학내 사랑을 하는 사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성관계를 가지며, 마치 ‘순결 이데올로기’를 신화적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성문화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일어나는 ‘권력문제’로 바라본다. 대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음성적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남성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로인한 여성의 신체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치유책이 없다는 것이다. 남학생들의 이 이중적인 사고방식은 무책임한 ‘왜곡된 성 문화’를 계속 키우게 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성문화의 원조는 1920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성 혁명’에 기인한다. 자동차와 영화관이 생겨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떠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1960년 피임약이 탄생되면서 여성은 임신을 조절하게 되었다. 여성운동의 첫 발걸음이 먹는 피임약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결혼없이도 ‘성’을 즐길 수 있는 자유와 ‘여성 운동’이 결부됨은 잘못된 성향이었고 필자는 생각

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무책임한 성문화’와 결합시키는 결과를 일으킨 것이다.

그 예로 유명한 ‘사르트르와 보바르’의 ‘계약결혼’이 있다. 시몬드 보바르는 ‘제 2의성’을 통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며, 여성의 권리가 마치 무책임한 성을 허용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며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잘못된 성’으로 유인했다.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마치 별개인 양 근사한 말로 포장했고, 그들의 지성적인 말과 글의 매력이 순진한 여성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보바르의 나르시시틱한 발언은 남성의 무책임한 성행위를 여성권리를 얻는양 정당화하게 하였다. 그들의 복잡한 연애 편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재주와 글재주의 ‘난동’은 마치 신세대를 개척하는 실존주의자로 포장했고,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을 ‘방임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의 고통에 빠지게 했다. 필자는 감히 그들을 무책임한 나르시시즘의 ‘난 사람’, ‘든 사람’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보글(K.A. Bogle)은 Sociology Compass를 통해 90년 중반에 생겨나기 시작한 미국의 ‘Hoop-Up’의 성 문화를 이야기한다. 미국 대학생은 90%가 넘게 ‘Hoop-Up’ 문화를 접했고, 80%가 이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한다. ‘Hoop-Up’ 문화는 캐주얼 섹스, 원나이트 스탠드 등의 책임없는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관계를 충분히 가진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성 관계를 가진 후 관계를 지속할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77%가 ‘Hoop-Up’의 성관계를 후회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Hoop-Up’ 문화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점점 크게 번져간다는 사실이다. 미성숙한 아이들은 성관계 후 큰 혼란에 빠져 학업에 지장을 갖는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다.

케시는 8학년 때, ‘Hoop-Up’ 문화에 속한

친구들의 압박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방임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로 시달림을 받다가 학교를 옮겼다. 전학을 하고도 계속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자포자기한 성관계를 했으며, 결국 마약에 빠져들었다. 마음과 몸이 많이 다친 후에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치료 중 ‘성관계’를 한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열망이었음을 고백했고, 아직 ‘성관계’의 전회나 오르가즘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미세스 김이 테라피를 요청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원인 모를 화가 불쑥 불쑥 치밀어 오르고,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자주 흐른다고 호소했다. 아이들도 잘 자라졌고, 자상한 남편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라 여기며 살아왔다고 했다. 근 일년의 치료 후 미세스 김은 자신의 ‘성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요구에 성생활을 이어왔지만, 자신은 항상 성생활을 기피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관계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의무적으로 해왔다고 했다. 2년의 연애기간을 걸쳐 결혼했다. 성생활에 항상 무관심한 그녀에게 남편은 가끔 불만을 표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대학 1학년 시절 동우회를 통해 그녀의 옛 남친을 만났다. 몇년의 연애 중 옛 남친은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깊게 뿌리박힌 그녀의 순결 이데올로기의 가치관은 그녀의 생명만큼 중요했다. 옛 남친은 그녀가 그와 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그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별을 고했다. 그녀는 이별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결국 성관계를 허락했다. 그녀의 첫 경험은 옛남친의 정복력을 채워주는 돌발적인 성관계였다. 단 몇 분 만에 관계를 맺은 후 남친은 “별거 아니었네”라며 등을 돌리고 잠을 잤다. 그녀는 호텔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상실감과 배반감,

수치감에 시달렸지만 그 옛 남친은 단 한번도 그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있게 말하고 행동한 적이 없었다. 그 후 성관계는 계속되었고 그녀는 ‘성’이 주는 쾌락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자신이 더욱 더러워지고 음습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임신을 했고 중절수술을 했다. 그렇게까지 자신이 망가지면서도 그녀는 단 한번도 당당히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치료 중에 이야기했다. 그 이후 그녀는 옛 남친의 ‘방임적 폭력’으로 ‘정서적 폭력’을 겪었다. 그의 반응에 집착하게 되었고, 집착할수록 그는 ‘무심’해져갔다. 그녀는 외로움과 억울함에 점점 정신적으로 약해져갔다. 결국 이중적인 잦대의 무책임한 옛 남친을 떠났다.

이 아픔을 혼자 마음에 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생을 단죄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옛 남친의 책임없는 ‘성관계’가 준 ‘방임적 폭력’의 결과다. ‘왜곡된 성문화’가 준 그녀의 일생의 ‘막대한 상실’인 것이다.

서강대의 정군은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질 수는 있으나, 정복력과 소유욕을 채우는 권력관계의 성문화가 아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여성을 배려하는 올바른 성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세스 김은 성관계 이전, 옛 남친에게 당당히 관계의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그 책임이 결혼이 있었다면, 결혼 약속을 받고 ‘성관계’를 했어야 한다. 공동 책임이 있는 ‘성관계’는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를 더욱 진실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올바른 성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필자는 다음 칼럼을 통해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다.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치아교정	•소아치과
•사랑니발치	•치아미백
•임플란트수술	•악관절(TMJ)
•보철/비니어	•수면진정마취
•신경치료	•3D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론상담

(2013-11-31까지)

Dr. Jeong Sook Lee (장정숙 선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종훈 선생)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1st.CHOICE DENTAL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Welcome, tbo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FESTIVAL!

티보 플레이(Tbo Play) 런칭 이벤트

이벤트 시행 기간 : 7월 14일 ~ 8월 31일(개통일 기준)

이벤트 내용 :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3개월 후 \$34.99로 과금)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부증여' 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지난 주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한국세법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주와 동일한 김한국씨 사례를 가지고 미국의 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부터 한국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증여당시 시가: 9억원
- 담보된 은행차입금: 4억원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2억원

2. 미국 세법상의 부담부증여

미국의 세법도 부담부증여를 일부는 '양도(매매)', 일부는 '증여' 로 봅니다. 즉,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금액은 양도로 보며, 시가(FMV; Fair Market Value)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그럼 양도로 보는 채무금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capital gain)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는 수증자(donee)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나, 아나니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데, 여기서는 수증자자 자선단체가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은 수증자로부터 받은 대가(즉, 수증자의 부채인수액)에

서 증여자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대가가 증여자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나는 경우 그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김한국씨의 부(父)가 미국 영주권자라 가정하고, 부(父)의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면,

- 양도가액은 4억원이고,
- 양도당시 상가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은 2억원이므로
- 양도차익은 2억원 (= 양도가액4억원 - 장부가액(basis) 2억원)입니다. 이는 지난 주에 살펴본 한국세법에 의한 양도차익(3.11억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사례를 바꿔 아래와 같이 부(父)의 취득가액이 은행채무액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 증여당시 시가: 9억원
- 담보된 은행차입금: 4억원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6억원

이는 양도가액이 4억원인데 반해 장부가액(취득가액)은 6억원이어서 손실(loss) 2억원(은행차입금 4억원 - 취득가액 6억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부담부증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세법에서는 양도로 인한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경우에도 한국세법에서는 부(父)의

양도차익이 아래와 같이 1.33억 발생합니다.

- 양도가액이 4억원이며,
- 그 4억원에 대응하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은 2.67억원(= 6억원의 9분의 4)이므로,
- 양도차익은 1.33억원(양도가액 4억원 - 취득가액 2.67억원)입니다.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미국세법상의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살펴봅니다. 미국 세법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아래의 ①과 ②의 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손실을 계산할 때는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클 수 없음).

① 아래의 a)와 b)중 큰 금액
a)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지급한 대가(즉, 채무인수액)
b)증여당시의 증여자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
② 증여세 납부액 중 일부

위 내용에 따라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을 구해보면, 아래의 ①과 ②의 합인 4억원(① 4억원 + ② 0원)입니다.

- ① 아래의 a)와 b)중 큰 금액 : 4억원
a)김한국씨의 지급액(채무인수액): 4억원
b)증여당시의 부(父)장부가액 : 2억원
- ② 증여세 납부액 중 일부 : 0원

이는 지난 주에 계산한 한국세법상 김한국씨의 취득가액 9억원(= 증여당시의 시가)과 차이가

있습니다.

3. 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김한국씨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과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 첫째: 한국에서는,
- 증여자인 부(父)는 채무면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3.1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 수증자인 김한국씨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이때 김한국씨의 상가 취득가액은 9억원이 됩니다.

둘째: 미국에서는,
- 증여자인 부(父)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부(父)는 미국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으며,

-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므로 수증자인 김한국씨 역시 미국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김한국씨와 부(父)는 미국에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제공 목적으로 김한국씨는 비거주자인 부(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Form 3520).

-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김한국씨의 상가 취득가액은 4억원입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41)

2014 상반기 주식시장

우리가 모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걱정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 대부분은 "돈" 과 연결이 됩니다. 투자자에게 투자하는 시점,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시점 등을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준다는 투자 정보 편지와 인터넷에서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기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그저 예측일 뿐입니다. 우연히 한 두 번 맞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2014년을 맞이하며 많은 전문가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중 으뜸인 예측은 '이자율' 입니다. 이자율 상승은 채권 가격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측은 지난 3년 동안 반복된 예측입니다.) 투자자(특히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은퇴자)는 채권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이자율 움직임을 알아봅시다. 올

해 초(1/2/14)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이 3%에서 상반기(6/30/14)가 지난 후 2.516%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자율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러 채권 수익률을 영어표기로 직접 표현합니다.

US Government Bonds (IEF): 4.89%, US TIPS (TIP): 5.25%, Corporate Bonds (LQD): 5.37%
International Bonds (IGOV): 5.66%, Emerging Market Bonds (LEMB): 6.42%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채권 시장에서 나왔다면 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식에 대한 예측은 더욱 많았습니다. 작년 32%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시장을 거론하며 앞으로 커다란 주식시장 재조정(correction)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20% 이상 하락한다는 예측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설명이 항상 동반됩니다. 양적 완화를 위해 미국 정부는 정

부가 발행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수출이 늘어난다면 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일자리

가 늘어나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받은 노임을 소비하므로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돈이 많으면 당연히 물가가 오릅니다. 돈이 시장에 넘쳐서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은 잘 되겠지만, 수입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입품은 비싸지고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때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으면 기업은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며

사람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비관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작년 말부터 연방준비위원회(FED)가 양적 완화(QE) 축소를 서서히 시작했습니다. 작년 매달 \$85 billion 시장에 풀었던 돈이 올해에는 \$35 billion으로 줄었지만, 주식시장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식가치(PE ratio)상승, 우크레인의 내전, 중국 경제 침체, 이자율, 등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올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상반기 주식시장을 살펴봅시다. 1/22~2/03 사이 5.51% 하락, 4/2~4/11 사이 3.89%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7.11%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시장에서 나왔다면 이러한 수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앞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언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큼 변화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며 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투자자 본인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성공하는 투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라이코스 와 아름다운교회가 연합하여 Newton Centre에서 한 몸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라이코스, 아름다운교회 연합 축하 예배

"이성조 목사 한국파송 및 김광식 담임목사 취임"

하나님의 섭리속에 라이코스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음을 감사하는 축하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격려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 2014년 8월 10일 주일 오후 5:00

장소 : 뉴튼 아름다운교회

1301 Centre st, Newton Centre MA 02468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축하만찬이 있습니다.

라이코스, 아름다운 교회 연합 위원회 및 성도 일동 드림



→ 오시는 길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유학생의 미국 의대 진학 (2)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바꿀 수 없다: 캐나다 출신을 제외하고는 국제 유학생이 미국의 의학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 예일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미국의 의과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의료 활동(의사로서의 경력)을 고려하는 유학생들은 의과 계통의 학부 과정에 지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의학 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Pre-med 학부 과정을 이수하는 것조차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미국 의학 대학 협회(AAM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에서 인증 받은 141개 의학 대학원 중 약 60개 학교가 유학생의 입학에 '고려'한다. 매년 유학생 신분의 의대생을 뽑겠다는 확답조차도 아닌 '고려(consider)'다. 그나마 이런 학교들마저도 유

학생 지원자를 고려할 때 미국 학생과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의대 랭킹 2위인 스탠포드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년치 의대 수업료 및 유학 비용(2억 5천 만원 이상)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시카고 대학의 의대(작년 8위)도 학비 지불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비싼 학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레드 스탠포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유학생은 매년 2-3명 수준이고, 시카고 대학은 지난 3년 동안 600명의 유학생 지원자 중 겨우 10명을 합격시켰다.

순위가 높은 학교 중에서 그나마 유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학교들을 살펴보자. 하버드 대학교(작년 의대 랭킹 1위)와 예일 대학교(7위), 에모리 대학교(22위)의 의학 대학원은 매년 꾸준히 10명 정도의 유학생을 입학 시킨다. 물론, 어떤 형식이던 학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변함이 없다. 결국, 기타 장학금이나 보조금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유학생 신분인 경우 미국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의 재정 능력 증명은 필수 사항이다. 이 부분은 아무리 뛰어난 컨설턴트라고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자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재정 능력이 반쳐준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의대 진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다.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사실 어느 전공이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빠르고, 철저할수록 좋다. 학비에 대한 책임 증명 외에도 유학생에게 내세우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대 진학을 위한 최소 필요 시험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평균적으로 유학생 신분이라면 같은 학교에 지원하는 미국인보다 MCAT(미국 의대 입학 시험) 점수가 2점 이상 높아야 한다), Boston University나 University of Pennsylvania처럼 미국에서 학부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해야 하는 조건도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나 주(State)별로 유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된다.

만약, 학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MD/PhD 복합 과정에 지원하거나, 박사 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Advanced Degree를 먼저 따고 의대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유학생 신분이라도 Advanced Degree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일단 영주권이 있다면 의학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도 높아진다. 또한, MD/PhD 복합 과정이라면 연구비 보조금 형식으로 유학생에게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의사 학위(M.D.: Doctor of Medicine) 과정으로만 지원하는 유학생보다 합

격 확률도 약간이나마 높은 편이다. 물론, 학부 과정 중에 내세울만한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고, 과학자로서의 경력에 대한 열정도 보여야 한다.

미국의 의학 대학원, 특히 과학이나 공학 부문 연구 실적이 뛰어난 Top School들 대부분은 의사학위(MD) 과정과 MD/PhD 과정을 동시에 제공한다. 의학 대학원 졸업 후에 학교에 남아 기초 의학연구와 환자 진료를 동시에 하길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의료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MD/PhD 소지자이기도 하다.

한국 유학생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미국 의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의학 계통에 꿈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힘든 길을 이겨낼 열정이 있다면 확률상 불가능에 가까울 지라도 의사로서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캠브리지 스쿨 오브 웨스턴(The Cambridge School of Weston: CSW)

정준기 원장 (보스턴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캠브리지 스쿨 오브 웨스턴(CSW)은 다양한 역사를 가진 학교로 1886년 아더(Arthur)와 스텔라 스캇 길만(Stella Scott Gilman)이 처음에 캠브리지 여학교(The Cambridge School for Girls)란 이름으로 설립한 학교이다. 그 당시에는 길만 학교(Gilman School)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학교는 당대 최고 여학교인 레드크래프트 칼리지(Radcliffe College)를 보내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1896년 헬렌 켈러(Helen Keller)가 1년 동안 수학한 학교이다. 이후 여러번의 이전과 동시에 학교 이름이 자주 바뀌었고, 1931년에 이르러 비로서 CSW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불리우고 있다.

현재 약 33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남녀 공학 보딩 고등학교로 보딩학생보다 데이학생들의 비중이 높다. 전체 학생의 약 25%가 보딩 학생들인 학교이지만 데이 성향이 강한 학교이다. 학교의 아카데미 특징이 타학교와 달리 일년 7학기제 모듈(Module) 시스템으로, 한학기에 몇개의 아카데미 코스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며 매 학기가 5주로 구성된 특이한 형태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이다. 매학기마다 학생들이 3개의 아카데미 코스와 1개의 교외활동을 해야만 한다.

뛰어난 아트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로 아트에 관심있는데 학생들이 우수하고 다양한 아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보스턴근교

웨스턴(Weston)지역에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주중 특별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캠브리지와 보스턴 주변 대학들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학교이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년 7학기 모듈 시스템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영어 4년, 수학 4년, 역사 2.75년, 과학 3년, 외국어 레벨 3, 미술 1.75년, 매년 15시간 봉사활동,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매년 스포츠 3크레딧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용이하고 보다 도전적이면서 독립적인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이다.

영어: 저널리즘, 미국 문학, 일본 문학, 장.단편 소설, 남아프리카 문학, 섹스피어, 작문, 세계 문학, 시 등 다양한 장르와 분야.

수학: Algebra 1, 2, Geometry, Statistics, Trigonometry, AP Calculus

과학: Biology, Chemistry, Physics, Cell Biology, Organic Chemistry, Ecology, Zoology, Ecology, Physiology 등

역사: Ancient Rome, China, World History, US History, Middle East, Modern Africa, Modern Japan, World Religions, Psychology

외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아트: Photo, Drawing, Collage, Film/Video, Painting, Sculpture, Woodworking, Art Lab, Design, Opera, Drama, Choir, Music Theory,

Jazz Ensemble, Wind Chamber Ensemble, Chorus, Instrumental Ensemble 등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와 토론 위주로 진행되고, 매 5주마다 수업 일정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반에서 만날 수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AP코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학교 주변 대학에서 수업 듣는 것에 대해 관대하다. 실질적으로 코스의 난이도를 높이고 도전적인 과목을 수강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Harvard Extension School)에서 다양한 대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주말에 학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교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학교이다.

(스포츠)
학생수가 적은 학교로 다양한 스포츠팀은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가을: 크로스 컨트리(Cross Country), 축구(Soccer), 필드 하키(Field Hockey)

겨울: 농구(Basketball)
봄: 야구(Baseball), 라크로스(Lacrosse), 테니스(Tennis), 프리스비(Ultimate Frisbee) 등의 팀 스포츠를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Junior Varsity와 Varsity 레벨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다.

(칼리지 프로그램)

현재 3명의 칼리지 카운셀러가 학생들의 진학을 돕고 있다. 지난해 학생들의 SAT 평균점수는 CR 640, Math 610, Writing 630이었다. 지난 3년간진학한 명문대학교로는 Amherst, Brown, CalTech, Carnegie Mellon, Columbia, Cornell, Dartmouth, Emory, Harvard, Johns Hopkins, Middlebury, Northwestern, Pomona, Swarthmore, Chicago, UPenn, WashU, Wellesley, Yale 등의 학교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명문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도 코넬, 와슈, 존스홉킨스, 콜롬비아 등에서 최근 입학이 허가되었다.

(재정보조 및 등록금)
2013-2014년도 데이 등록금은 \$41,900, 보딩은 \$54,400이었다. 지난해 전체 학생들 중 약 25%가 재정보조 수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외국 학생들에게는 재정 보조 혜택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입학 절차 및 전략)
입학은 경쟁적이지는 않지만 학업 수행 능력, 토플, 학교 성적, 인터뷰가 입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학생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학교 성적, 추천서, 인터뷰, SSAT, TOEFL 성적, 학교 방문등이 필요하고 입학 신청 마감일은 2/1일 이고 결정은 3/10일날 발표를 한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린드롬(Laundromat) 많은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8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67,000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3,000 매매가격 \$3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0,000

세탁소 뉴턴지역, 연매상 \$17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 연매상 \$600,000+, Full 리커 면허증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떡아님)

보스톤 북쪽 큰 몰안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아침, 점심(6일) 매상 \$180,000 주변에 아파트 신축 중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악세사리, 연매상 \$500,000+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턴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 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이드업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2014 보스톤교육원 여름방학 SAT I Program

I. 내실있는 Program 구성

- 문제 유형별 수업 후 후반 실전 test 위주 수업
- 매일 단어 및 실전문제 test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 프로그램(9:00~5:30)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home work, 매주 test 결과 보고서 발송)

III. 합리적인 수강료

- 정규반: \$950 / session (3주)
- 주말반: \$450 / 3주

II. 실력있는 강사진

- **Critical Reading**
영문학박사
다년간 SAT 강의 경력의 실력있는 강사
- **Writing**
15년 이상의 강의 경력
에세이 쓰기 및 교정 전문가
- **Mathmatics**
공학박사
오랜 경험으로 학생들 취약점 파악 후 지도

IV. 다양한 선택 가능성

- Session 별 각기 다른 수업 및 test 자료
- 실전문제 풀이 중심 주말 특별반
- New SAT (2016년 시행) 준비반

* 저학년을 위한 writing, reading clas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services@bostonedu.org